

한국목간학회

제 43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 ❖ 일시 : 2024.1.19.(금) 13:00~17:40
- ❖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
- ❖ 주최 : 한국목간학회·국립중앙박물관

일정

13:00~13:30	장내 정리 및 개회 준비	
13:30~13:40	인사말	학회장 및 박물관 관계자
13:40~15:00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 - 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 -	김병조(기호문화재연구원)
15:00~16:10	근년 출토된 일본 목간에 대하여	小宮秀陵(獨協大學)
16:10~16:30	신년 휘호 및 휴식	
16:30~17:4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 잔비武周康居士寫經功德記殘碑>의 복원 — 무주 시기 투루판 지역 소그드인 불교도의 대장경 조성	권영우(국립중앙박물관)

목차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	5
- 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 -	
김병조(기호문화재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잔비	23
武周康居士寫經功德記殘碑〉의 복원	
— 무주 시기 투루판 지역 소그드인 불교도의 대장경 조성—	
권영우(국립중앙박물관)	
근년 출토된 일본 목간에 대하여	45
小宮秀陵(獨協大學)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

- 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 -

김병조(기호문화재연구원)

양주대모산성 원형집수시설 출토 목간

- 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 -

김병조(기호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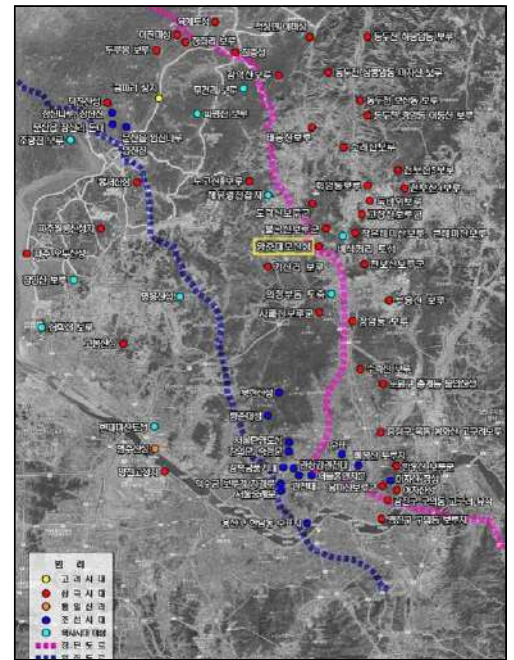
목차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3. 조사성과

1. 조사개요

양주대모산성 13차 발굴조사는 양주시에서 진행하는 양주대모산성(사적 제526호)의 종합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술조사이다. 양주대모산성의 발굴조사는 1980~1984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5차례에 걸쳐 북문지 주변 성벽부터 남문지 일대까지 조사한 것이 최초이며, 이후 1995년과 1998년에 한림대학교 박물관에서 동문지와 서문지 일대를 조사하였다. 2013년 6월 양주대모산성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2018년부터 기호문화재연구원에서 성벽구간 및 성내 평탄지 주변을 연차발굴조사하고 있다.

금번 발굴조사는 13차로 조사범위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외 4필지에 해당하며, 총 조사면적은 1,600㎡(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1,000㎡+북서쪽 성내 하단부:600㎡)이다. 현장 조사는 2023년 5월 17일부터 동년 12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 일대에는 성벽의 양상과 건물지 및 집수시설 등 성내시설이 확인되었고, 북서쪽 성내 하단부 일대에는 중복된 석축과 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의 토기, 기와, 철제류, 목기류 등이 다양하게 수습되었다.



[도면 1] 양주대모산성 주변 고대 교통로
(양주대모산성 종합정비계획 57p)



[사진 1] 대모산성 주변 원경(Google Earth 편집)

2. 조사내용

양주대모산성은 대모산(해발 213m)의 정상부에 조성된 테뢰식 석축산성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 입지양상은 북동쪽에 불곡산(466.4m), 남서쪽에 호명산(425m)이 병풍처럼 자리하고 북서쪽과 남동쪽으로는 광범위한 가시권역이 형성되어 있어 전략적 요충지의 특징이 있다.

문헌에는 1530년에 제작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11권 양주목(楊州牧)편에 『大母山城 在州西五里 石築 周九百六尺 高五尺』로 기록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모산성은 서쪽 5리 지점에 있으며 석축이다. 둘레는 9백 6척이고, 높이는 5척이다." 1808년 만기요람(萬機要覽), 1853~1856년 여도비지(輿圖備誌), 1861~1866년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슷한 기록이 존재한다. 19세기 초에 제작된 양주군읍지(楊州郡邑志) 고적(古蹟)편에서는 『大母山城 在州西五里 邑內面 旱則祈雨於此』라고 기록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모산성은 주 서쪽 5리에 있으며, 읍내면이 가물면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낸다." 이같은 기록은 1842~1843년에 제작된 경기지(京畿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제작된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주내면 유양리, 백석면 방성리의 사유전인 대모산성의 둘레는 약 430間, 높이 약 13尺, 북부의 일부분은 절석, 기타는 천연석을 사용, 북·서북·서남에 통로 있음, 도기 및 기와 파편 산포"라고 기록되어 있다.

고지도에는 1623~1720년 지나조선고지도(支那朝鮮古地圖), 1750년대 초반 해동지도(海東地圖), 19세기 중엽의 동여도(東輿圖)에 기록되어 있다.



동여도(1849~1863년)



지나조선고지도(1623~1720년)



동여도 고성 범례



동여도 확대



해동지도(1724~1776년)



[사진 2] 조사지역 일대 항공사진(1979년)

조사방법은 조사지역 내에 10×10m 크기의 그리드를 구획하고 전체 중심토층독을 설정한 후, 유구확인층까지 층위양상에 맞춰 하강제토작업을 하였다. 유구는 평면형태를 확인하고 내부토층독을 설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구 및 유물의 연대는 통일신라시대이며, 자세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13차 발굴조사 현황

조사지역	그리드	유구	출토유물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 (해발205~213m)	S1E4	성벽 (체성벽, 2차성벽, 보강석렬)	개, 대부완, 고배, 태선문·격자문·어골문기와, 철검, 등자(호등) 등
	S1E5		
	S1E6		
	S2E4		
	S2E5	건물지	개, 대부완, 고배, 벼루편, 무문·선문·격자문·어골문·복합문기와, 명문와, 철정, 철축 등
	S2E6		
	S2E7		
	S3E3	집수시설	편구병편, 경질토기편, 무문·선문·격자문·어골문·복합문기와, 명문와, 목간, 주형목기 등
	S3E4		
	S3E5		
북서쪽 성내 하단부 (해발170~180m)	N9W7	석축, 석렬, 건물지	부가구연대부장경호, 개, 소호, 완, 파수호편, 경질토기편, 무문·선문·격자문·어골문·복합문기와, 명문와, 철제고리, 철술 등
	N9W8		
	N8W7		
	N8W8		
	N7W7		
	N7W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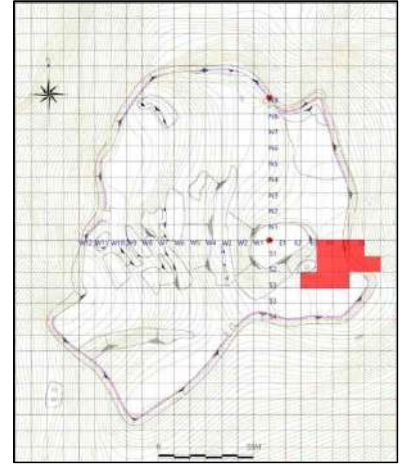
1)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

(1) 성벽

대묘산성의 상단부 동쪽에 위치한 성벽구간으로 그리드(10×10m) 4칸에 걸쳐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산성 내부로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직상방에서 살펴보면, 체성벽의 내·외면석과 채움석, 체성벽 외벽에 덧붙여 축조된 2차성벽, 2차성벽 최하단의 보강석렬까지 확인되었다. 성벽의 외부에서 입면을 살펴보면, 바닥면부터 1~2단의 보강석렬과 약 30단의 2차성벽이 확인된다. 또한 체성벽은 4~5단의 면석이 잔존하고 있으며, 그 위로 면석이 이탈되어 채움석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금번 조사된 성벽구간의 총 연장길이는 33.2m, 총 잔존높이는 9m, 전체 폭은 약 7m이며, 2차성벽의 높이는 약 6m이다. 사용된 면석의 크기는 약 15×40cm 정도이고, 채움석은 약 13×40cm 정도의 할석 등을 사용하였다.



[도면 3] 성벽구간 위치도

성벽의 조사방법은 우선 상부의 잡목과 수풀을 제거하여 표토면에서 유구의 양상을 파악하였고, 경계부에 Pit를 설치하여 전체적인 층위양상을 검토한 뒤, 전면 제토를 시작하였다. 성벽구간은 Pit 내에서 유구의 형태 파악이 가능했기에 성벽을 한 번에 노출시키기보다는 1.5m 깊이로 단계적 평면하강방식을 균일하게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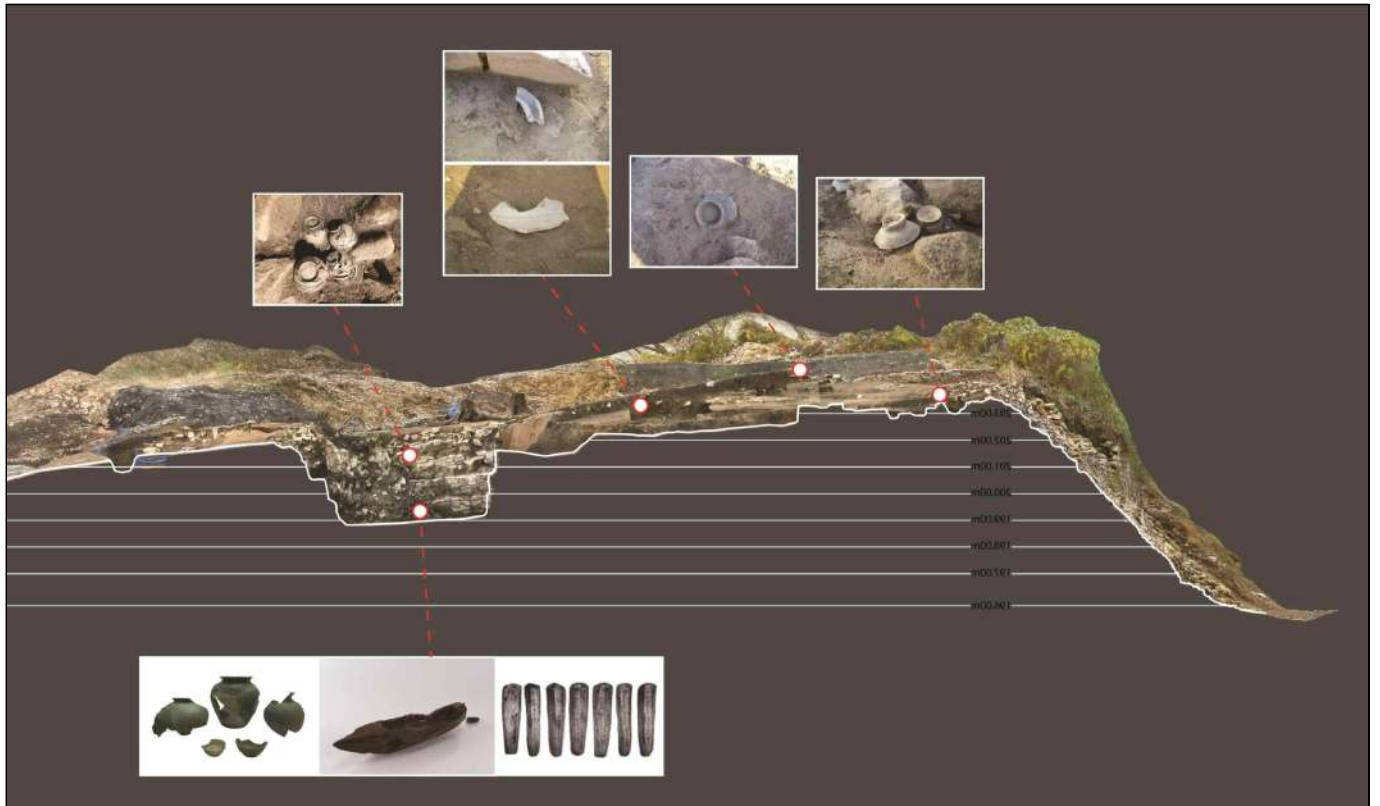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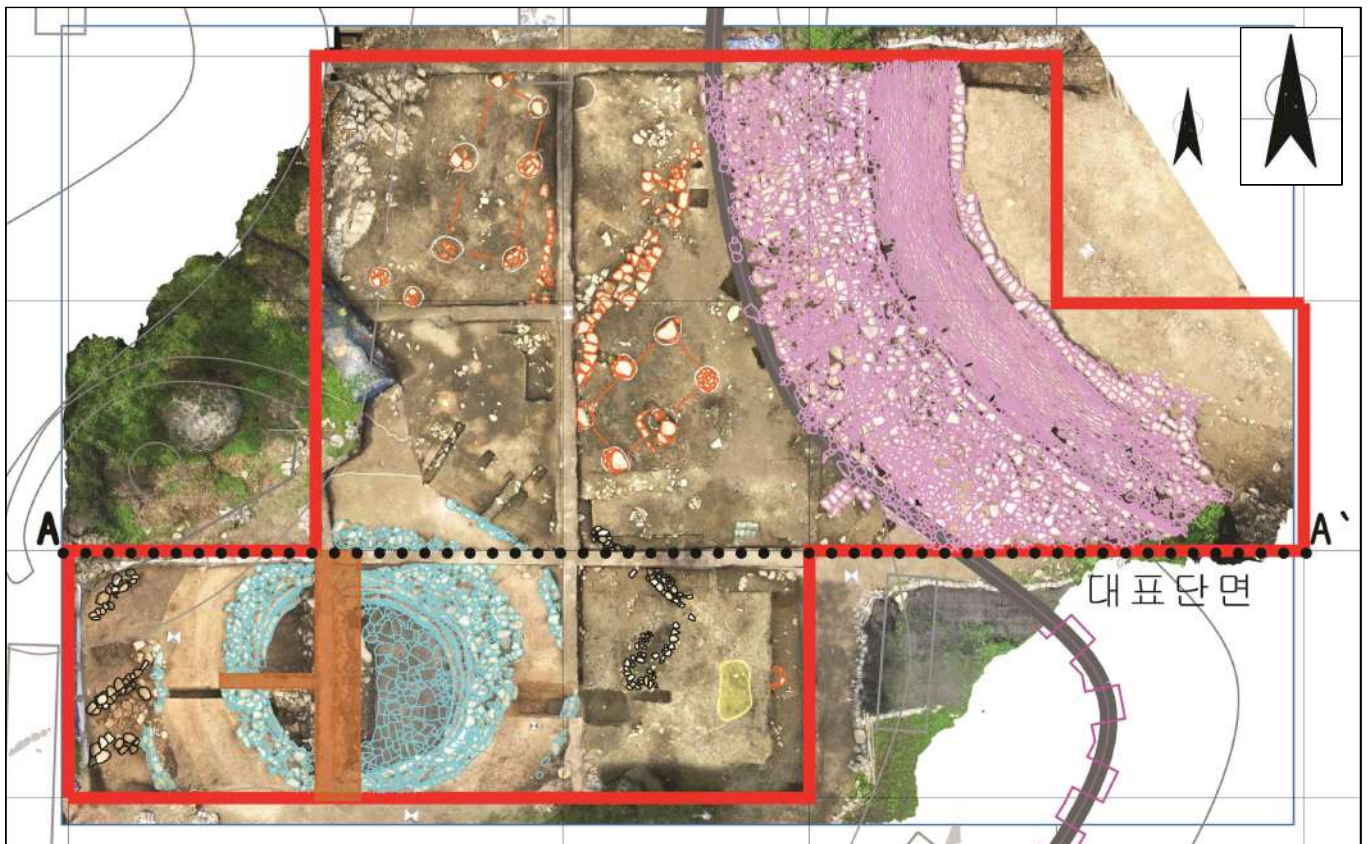
성벽의 축조양상은 체성벽→2차성벽→보강석렬→보강토 순으로 관찰된다.

체성벽의 면석은 장방형으로 치석한 화강암 석재를 '品'형태로 수직에 가깝게 '바른층쌓기'하였으며, 내부에는 크기가 정연하지 않은 북돌·심석·잡석 등의 할석을 채워 축조하였다.

2차성벽은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으로 정교하게 치석된 화강암 석재를 체성벽과 같은 방식으로 쌓았으며, 내부에는 체성벽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할석과 사질점토를 채워 축조하였다. 최하단부터 5~10cm정도씩 점차 들여쌓기를 하였으며, 약 62°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단면 형태는 계단식의 직각삼각형에 가깝다. 2차성벽 상부에는 1.8m 간격으로 수직기둥홈이 확인된다. 수직기둥홈의 기능은 상부구조물의 지지대 혹은 성벽 축조시 비계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추정되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이다.

보강석렬은 방형 혹은 장방형의 대형 석재를 2차성벽 최하단석 앞으로 50cm 정도 내어 축조하였다. 동쪽 치가 끝나는 지점부터 북쪽 2차성벽을 따라 계속 연장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통일신라시대의 선문·격자문·복합문 등의 와편과 개·대부완·고배 등 토기편 등이 소량 수습되었으며, 철제 호등, 철검 등이 상부에서 확인되었다.



[도면 4]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 현황 및 중심토층 단면도



[사진 3]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 원경(동→서)



[사진 4]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 원경(서→동)



[사진 5] 동성벽 입면



[사진 6] 성벽구간 전체 층위양상



[사진 7] 성벽구간 세부 토층

(2) 성내시설

대모산성의 동쪽 상단부 평탄대지에 위치하며, 그리드(10×10m) 7칸에 걸쳐 건물지 및 원형집수시설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① 집수시설

집수시설은 동쪽 성내 상단부 남서쪽의 그리드(10×10m) 4칸에 걸쳐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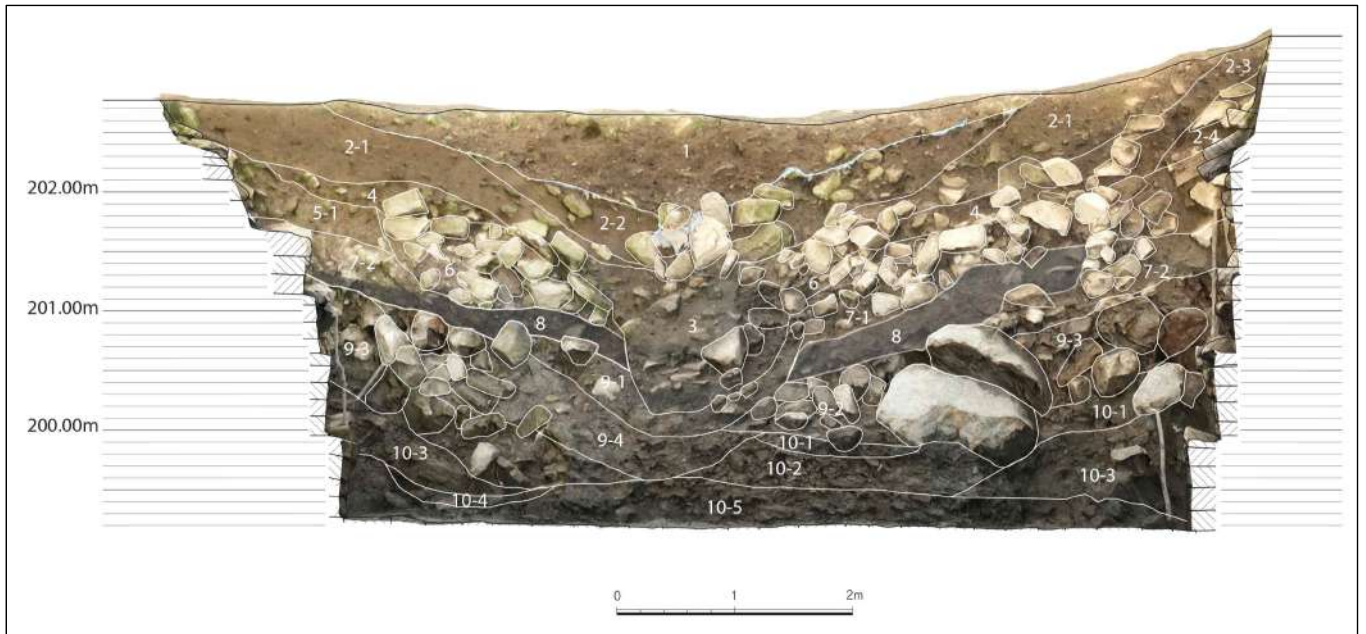
북동쪽으로 성벽구간의 내성벽과 이격거리 12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성벽과 집수시설 사이 공간에 건물지, 압거시설, 석렬 등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원형으로 직상방에서 보면 동심원을 이루고 있다. 외곽으로는 30~60cm 크기의 치석된 석재와 할석들을 2~3단 바깥으로 면맞춤하여 원형으로 축조하였다. 외곽 석렬에서 약 2m 정도 안쪽에서 다시 석렬이 안쪽으로 면맞춤하여 원형으로 축조되었다. 전체 지름은 18m, 잔존 깊이는 3.6m 이상이며, 내부 호안석축의 상부 지름은 11m이다. 현재 4개의 단이 확인되며, 원래 5개의 단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 단의 구성은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의 치석된 석재를 '품'형태로 '수직바른층쌓기'하였다. 단이 바뀔 때마다 약 25cm 정도 들여쌓기하여 단면은 계단식이다.

조사방법은 구획된 그리드 내에서 수직평면하강조사를 실시하여 유구의 평면형태와 범위를 확인하고, '十'형태의 중심토층을 설정하였다. 최초에 중심토층에 맞춰 Pit조사를 시도하였으나, 퇴적된 층위에 매몰된 대형석재가 빼곡하여 Pit조사를 멈추고 '十'형태의 중심토층 우측 하단부부터 4분법조사를 진행하였다. 중심토층을 유지한채 층위와 호안석축 벽면을 검토하며 바닥석까지 하강하였다. 층위양상을 검토하여 9차례의 하강조사를 계획하고 전체적인 내부조사를 진행하였다. 층위양상을 기준으로 계획된 9차례의 하강조사면은 평면상에서 양상을 기록하기 위해 3D메타쉐이프와 GPS측량을 활용하여 수시로 기록하였다.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우선, 대지를 지름 18m, 깊이 3.6m 크기의 평면형태 원형으로 사선 또는 계단식으로 굴광하고 30~90cm 크기의 대형 할석을 편평하게 바닥석으로 시설하였다. 바닥면은 상부면을 맞춰 편평하게 박석시설을 하였으나, 석재를 치석하지 않고 깨진면을 맞춰 축조하였다. 바닥석을 시설한 뒤, 벽체는 30~60cm 크기로 치석된 장방형의 석재를 '품'형태로 '수직바른층쌓기'하였으며, 30~60cm×20~25cm×10~15cm 크기의 세장방형의 판석을 쌓아 한 단을 마감하였다. 총 높이 80~90cm의 한 단을 축조한 뒤, 같은 방법으로 잔존하는 4개 단을 약 25cm씩 들여쌓기하였다. 원형은 5차례에 걸쳐 단을 내고, 지표면 상부로도 한 단 정도 더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4단까지만 뚜렷이 확인된다. 호안석축의 면석 내부로는 20~50cm 크기의 할석들을 채움석으로 축조한 양상이 상부에서 확인된다. 채움석 외부로는 굴광면까지 황갈색 점질토를 밀도있게 채웠으며, 토층에서 판축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외곽으로는 상부에 20~30cm×40~50cm 크기의 할석을 바깥쪽으로 면맞춤하여 마감하였다.

퇴적양상은 최하층 바닥면에서 약 60cm 두께로 침전된 유기물과 점질토, 기와, 토기 등이 퇴적되어 있고, 그 위로 40~100cm 내외의 대형 석재가 80cm 두께로 퇴적되어 있다. 대형석재가 퇴적된 층 상부에는 5~10cm 두께의 펄층에 가까운 흑갈색 점질토층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위층으로 30cm 내외의 소형 할석들이 퇴적되어 있다. 소형 할석 퇴적층 위로 50cm 내외의 중형 석재가 중심부근으로 집중되어 퇴적되어 있으며, 중심부에는 너비 80cm, 깊이 1m의 'U'형태로 되파기하고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층이 확인된다. 나일론면끈 등이 토층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근대에 매몰된 층으로 판단된다. 그 위로는 근대에 복토된 것으로 판단되는 갈색 사질점토층이 확인된다.



[도면 5] 집수시설 층위양상(1/40)

출토유물은 퇴적된 내부토에서 매몰된 석재들과 함께 통일신라시대(9~10c)의 기와가 다량 확인되었다. 최하층 내부토(10지층)에서는 명문와를 비롯한 선문·격자문·복합문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최하층 바닥면(10-5지층)에서는 경질토기와 함께 일부 목기가 확인되었다. 목기는 가공된 건축자재 혹은 도구의 일부로 추정되며, 배모형의 주형목기와 약 30cm 크기의 원통형 목간이 출토된 것이 특징적이다. 목간은 원통형 나무에 8개의 면을 깎은 뒤 글과 그림을 빼곡히 목서하였다.



조사 중1 (1지층)



조사 중2 (2~4지층)



조사 중3 (5~6지층:중형할석)



조사 중4 (7지층:소형할석)



조사 중5 (8지층:돌층)



조사 중6 (9지층:대형석재)



조사 중7 (10지층:퇴적층)



조사 중8 (10지층:목간출토)

[사진 8] 원형집수시설 층위별 내부조사 전경



[사진 9] 조사 중9 (바닥석 노출)



[사진 10] 조사 중9 (원경)



[사진 11] 집수시설 호안석축 전경



[사진 12] 집수시설 호안석축 세부



[사진 13] 놋그릇 일괄(2지층)



[사진 14] 기와(7지층)



[사진 15] 기와(9지층)



[사진 16] 목간 (10-5지층)



[사진 17] 주형목기(10-5지층)



[사진 18] 기와, 토기, 목재 등 (바닥석)

※ 원형집수시설 內 출토 목간(上:실물촬영, 下: 적외선촬영)¹⁾



재단법인 기호문화재연구원



재단법인 기호문화재연구원

1) 유물 1개체를 각 면이 잘 보이도록 촬영하여 배열하였으며, 좌측부터 1면이다.



3. 조사성과

금번 조사지역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일원에 위치하며, 발굴조사 면적은 1,600㎡이다. 발굴조사 진행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은 추정 장대지 기준으로 동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1,000㎡)에서 성벽, 건물지, 집수시설 등이 확인되고, 북서쪽 성내 하단부(600㎡)에는 중복된 석축과 대지조성면에서 건물지, 석축 전면에서 필층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동쪽 성벽구간 및 성내 상단부는 그리드(10×10m) 10칸이 조사진행되었으며, 성벽구간에서는 체성벽+2차성벽+보강석렬+보강토가 잔존높이 9m 까지 매우 양호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성내 상단부에는 적심 및 초석 등이 확인되어 건물지가 2동 이상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름 18.1m(11m), 깊이 3.6m에 달하는 대형의 원형 집수시설이 확인된 상태이다.
3. 성내 상단부 원형집수시설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및 토기와 더불어 최하층의 점질토층에서 약 29점 이상의 다양한 목기류가 확인되었다. 목기류는 절구공이 등의 생활유물과 주형목기, 주부목간 등의 의례유물이 출토되었다. 특히, 목간은 총 8면으로 구성되었고 그림이 있는 한면과 공란 한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 8행의 글씨가 묵서되어 있으며, 총 글자수는 123자로 구성되어 있다. 목간의 2면에 적혀있는 '정개 3년 병자 4월 9일'(政開三年丙子四月九日)의 '정개'(914~918)는 태봉국 궁예(? ~ 918년)의 마지막 연호이며, 정개 3년은 916년에 해당한다. 목간의 4면에 적혀있는 '신해세입육무등'(辛亥歲廿六茂登)에서는 신해년 태생의 26세 "무등(茂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신해년은 891년으로 정개 3년(916년) 시점에 26세로 계산되어 목간의 제작 시점과 일치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잔비
武周康居士寫經功德記殘碑〉의 복원
— 무주 시기 투루판 지역 소그드인 불교도의 대장경 조성

권영우(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잔비武周康居士寫經功德記殘碑〉의 복원

－ 무주 시기 투루판 지역 소그드인 불교도의 대장경 조성

권영우(국립중앙박물관)

목차

- | | |
|---------------------|----------------------|
| I. 머리말 | III. 비편의 접합안에 대한 재검토 |
| II. 강거사비의 발견과 소장 경위 | IV. 사경목록의 복원 |
| | VI. 맺음말 |

I. 머리말

〈경당비經堂碑〉(본관3870)라는 등록명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무주 강거사 사경 공덕기 잔비武周康居士寫經功德記殘碑〉(이하 강거사비)는 일본 오타니 탐험대(大谷探險隊) 제3차 탐험 기간인 1912년에 현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투루판(吐魯番, Turfan)의 옛 도성 유적인 고창고성高昌故城(카라호자, Karakhoja)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하는 당唐 무주武周 시기의 비 잔편이다(도1). 이 비는 1914년에 탐험대가 철수하면서 오타니 고즈이(大谷光瑞, 1876~1948)의 별장 니라쿠소(二樂莊)로 옮겨졌고, 1916년 5월에 373건의 오타니 탐험대 수집품과 함께 조선총독부박물관으로 입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도1. 강거사비의 대석과 소석(번호 필자 표시)

강거사비는 윗부분의 대석大石 1점과 아랫부분의 소석小石 13점이 167.0×95.5×11.5cm 크기의 나무틀 안에 배치되어 있다. 상단의 대석은 크게 네 덩이로 쪼개져 있다. 우측 상부에 따로 떨어져 있는 작은 편은 대석의 글자 구성과 편 아래에 대석의 일부가 노출된 점으로 판단하건대, 아래 대석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편 주위에는 흙과 짚을 섞은 충전재를 채워 넣고 표면에 시멘트를 두께 약 2~5mm 정도로 평평하게 발라 마감한 상태이다. 액자 바닥에서 비면까지의 높이가 10cm에 불과해 비편들은 박편인 것으로 판단된다. 석질은 퇴적암 계통으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며 표면은 고르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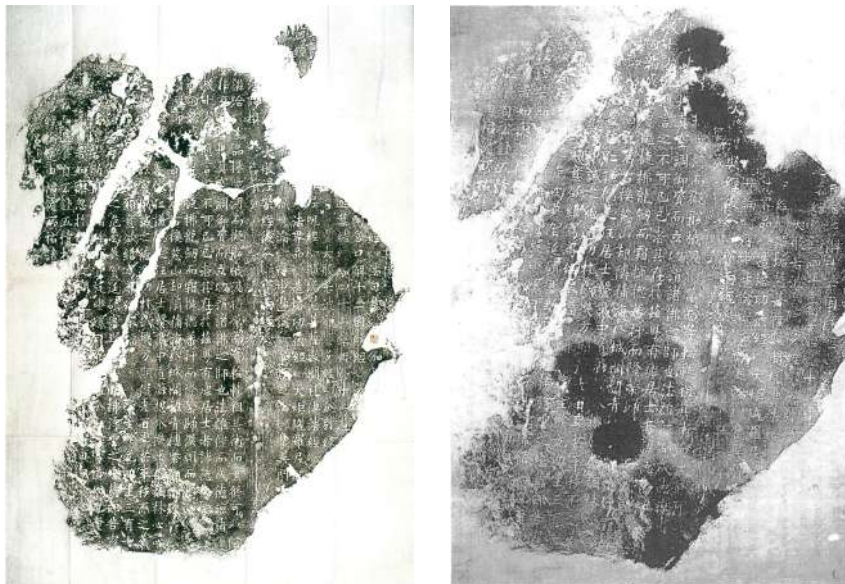
비편 14점에 남아 있는 전체 글자 수는 550자이다.¹⁾ 글씨는 해서체로 정연하게 새겼으며 정간은 극치 않았다. 대석의 크기는 102.0×80.7cm이다. 대석에는 명문 총 24행 411자가 남아 있으며, 각행의 글자 수는 1~29자로 일정하지 않다. 비문은 비를 조성한 강거사康居士라는 인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필사하여 기진한

1) 잔획으로 原字를 추정할 수 있는 글자도 글자 수에 포함시켰다.

불교 경전의 사경목록에 해당하는 전반부와, 강거사의 공덕기에 해당하는 후반부로 나뉜다. 사경목록은 대석 제1~9행과 소석 A·B·C·D·E·F편의 명문이고, 공덕기는 대석 제10~24행과 소석 G·H·I의 명문이다(도1).²⁾ 대석의 공덕기에는 당 측천무후(則天武后, 재위 690~705년)가 제정하여 반포한 측천문자則天文子 가운데 ‘𠄎(月)’, ‘圀(國)’, ‘𠂔(年)’, ‘𠂔(天)’자가 있어 비는 무주 시기(690~705년)에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도2).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조선총독부박물관이 의뢰하여 구입한 강거사비의 탁본 2매도 소장되어 있다.³⁾



도2. 강거사비 공덕기의 측천문자(좌에서 우 순으로 月, 國, 年, 天에 해당)



도3. 뤼전위의 강거사비 탁본(1914년 탁본), 중국국가도서관 소장

도4. 「지나기행」 수록 강거사비 탁본
캡션: “당 시대의 석비-투루판 부근 카라호자 성터에서 발굴된 것(작자 및 내용 미상)”

강거사비에 대한 연구는 오타니 수집품이 니라쿠소에 있던 1914년 8월(음력6월), 당시 일본에 망명해 있던 뤼전위(羅振玉, 1866~1940)가 그곳을 방문해 비를 실견하고 기초자료를 남긴 데서 시작되었다. 그는 비의 현상을 기술하고 비문을 옮겨적어 『서수석각후록西陲石刻後錄』에 실었고, 대석 부분의 탁본을 제작하여 귀국했다(도3).⁴⁾ 그는 비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소실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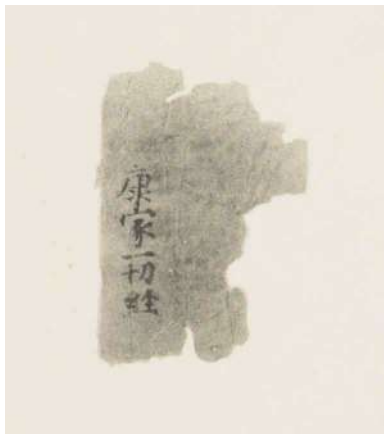
2) 나머지 소석 3점은 각각 1자의 잔획이 있으나 판독 불가이다.

3) 조선총독부박물관은 1919년에 국내 소재 금석문 24건에 대한 탁본 제작을 의뢰하여, 角田幸太郎로부터 구입하였다. 그중 <고창국경당비탁본高昌國經堂碑拓本>(본관6883)'이 포함되어 있다.

4) 뤼전위의 강거사비 탁본은 1935년에 중국 國立北平圖書館으로 입수되어 현재 中國國家圖書館 善本部에 소장되어 있다. 이 탁본은 2004년 4월 22일부터 5월 22일까지 베이징 중국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된 전시인 <사마르칸트에서 장안까지: 중국의 소그드인 문화 유적(從撒馬爾干到長安: 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迹)>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탁본의 도판과 해설은 榮新江, 張志清 主編, 『從撒馬爾干到長

비의 제목(題額)을 ‘위주 강거사 선경기 잔비(僞周康居士繕經記殘碑)’로 명명했다. 그 밖에도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석의 또 다른 탁본이 1937년에 출간된 『신서역기(新西域記)』하권 수록 요시카와 고이치로(吉川小一郎, 1885~1978)의 탐험기 「지나기행(支那紀行)」에 삽도로 실려 있다(도4).⁵⁾

강거사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6년 룡신장(榮新江)이 발표한 「무주정권에 대한 소그드인들의 태도(胡人對武周政權之態度)」에서 이루어졌다.⁶⁾ 그는 탁본 사진과 뒤편위의 기초 정보에 의거하여 기존의 판독문을 재검토했으며, 불완전한 명문으로부터 강거사가 사경한 경전명을 일부 복원해냈다. 그리고 사경목록의 말미에 적힌 최신 경전인 『보우경(寶雨經)』의 한역 시기가 693년(張壽2)이고 축천문자가 폐지된 해가 705년(神龍1)인 점에 근거하여, 비의 제작 연대는 그 사이가 될 것으로 비정했다. 특히 그는 공덕기의 분석을 통해 강거사의 사경과 비의 조영에 내포된 정치적 의미에 대해 논의했다. 즉, 강거사는 사마르칸트(康國) 출신으로 당시 서주(西州)의 소그드인(粟特人) 공동체의 지도자였으며, 그가 무주 정권의 정치적 선전물인 『보우경』을 포함한 대량의 경전을 사경하고, 그 사실을 비에 새겨 공표한 것은 개인적인 발원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무주 정권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대사업이자 무주 정권에 대한 소그드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반영한다고 주장했다. 글의 말미에는 오타니 탐험대 수집품 중 투루판 토욕(吐峪溝)에서 수습된 것으로 전하는 <‘강가일체경(康家一切經)’ 표제 잔편>에 주목하여,⁷⁾ 이것이 당시 강거사의 사경활동을 실증하는 유물일 가능성을 신중히 제기했다(도5).



도5. 『서역고고도보』 수록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 傳 투루판 토욕 출토



도6. 뤼순박물관 소장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LM20-1454-11-07)

이후 2016년에 룡신장은 선행 연구를 재고한 「“강가일체경”고 “康家一切經”考」를 발표했다.⁸⁾ 그는 일본 궁내청(宮内廳) 서릉부(書陵部)에 1점의 대석뿐 아니라 13점의 소석이 포함된 강

安: 粟特人在中國的文化遺迹』(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4), pp.132-133 참조.

5) 吉川小一郎, 「支那紀行」, 『新西域記』下卷, 上原芳太郎 編(東京: 有光社, 1937), pp.604-605.

6) 榮新江, 「胡人對武周政權之態度: 吐魯番出土〈武周康居士寫經功德記碑〉校考」, 『民大史學』第1期(1996), pp.6-18; 同, 『中古中國與外來文明(修訂版)』(北京: 三聯書店, 2014), pp.193-209 재수록.

7) 香川默識 編, 『西域考古圖譜』下(東京: 國華社, 1915), 佛典附錄 5-3; 井ノ口泰淳 編, 『西域出土佛典の研究: 研究冊』(京都: 法藏館, 1980), p.134; 同, 『西域出土佛典の研究: 圖版冊』(京都: 法藏館, 1980), Pl. LXXXIX.

8) 榮新江, 「“康家一切經”考」, 『旅順博物館學苑2016』(2017), pp.60-73; 孟憲實, 王振芬 主編, 『旅順博物館藏新疆出土漢文文書研究』(北京: 中華書局, 2020), pp.198-214 재수록.

거사비 탁본이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사진을 입수했다. 또한 2015년에는 중국 뤼순박물관(旅順博物館) 소장 신장 출토 한문문서 정리 연구 사업에 참여하여 불교 관련 전적 사본을 검토하던 중 토욕 발견 표제 잔편과 서체가 같은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을 추가로 발견했다(도6).⁹⁾ 그는 이 신자료에 힘입어 일부 비편의 결합을 시도하여 복원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의 사경목록에 등장하는 경전들을 나열된 순서상 ‘대승경론大乘經論’, ‘현성집전賢聖集傳’, ‘당조신역대승경론唐朝新譯大乘經論’의 세 범주로 분류했다. 잔존 명문으로 확인 가능한 경전 수는 44부 858권으로, 강거사가 사경한 경전 수량은 동시기 불교 사원에 입장入藏된 삼장三藏의 전체 수량 800부 3,361권의 약 1/4에 상당함을 지적했다. 강거사의 사경 활동은 당시 서주西州 사찰의 경장經藏 일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 경전을 중복 없이 1부씩 사경한 것은 경장에 1조의 장서를 구축하기 위한 정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으며, 단순히 공덕을 쌓기 위한 것보다는 독경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투루판 출토 문서에는 비문에 적힌 44부의 경전명 중 16부에 해당하는 경전의 잔편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그는 이 잔편 가운데 실제로 강가일체경에 속하는 경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입증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것들은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과 더불어 비문에 등장하는 강거사의 사경 불사와 밀접한 관련을 지닐 것으로 주장했다.

룽신장의 두 편의 연구는 강거사비의 탁본과 판독문을 토대로 비 자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무주 시기 사료와 투루판 출토 불교문헌을 검토하여 비를 둘러싼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논의까지 구축해 나간 탁월한 학술 성과이다. 그렇지만 탁본과 판독문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잔편의 결합과 경전들의 복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비의 원형을 복원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본 발표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잔비〉에 대한 2020년 박물관의 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선행 연구를 반영 또는 재검토하여 비편의 접합과 사경목록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사경목록에 등장하는 경전의 선택과 구성, 순서에는 규칙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시기 편찬·유통된 대장경목록과 대조하여 강거사비의 사경목록이 의거하는 ‘소의 경전목록’을 찾아내고자 한다. 이는 비문에 새겨진 사경목록의 전모와 그 분류체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나아가 강거사비의 원형을 복원하고 조성 연대를 고증한다. 그리고 사경목록에 있는 경전들의 필사와 공덕비의 조성까지 이어졌던 강거사의 대사업을 둘러싼 역사적인 맥락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7세기 말 무주 시기 서주에서 소그드인 재가신자가 일으킨 대규모 불사의 한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다.

II. 강거사비의 발견과 소장 경위

「지나기행」에 따르면, 요시카와 고이치로는 단독으로 투루판 지역 탐험을 수행하고 있던 1912년 6월 14일에 카라호자(고창고성)에서 발견된 석비를 구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수와

9) 王振芬, 孟憲實 等 主編, 『旅順博物館藏新疆出土漢文文獻』3(北京: 中華書局, 2020), p.63.

말을 보내 비를 싣고 오게 했다.

6월 14일 금… “…카라호자에서 발굴되었다고 하는 석비를 2량兩에 구입했다고 한다. 그 비를 운반해 와야 해서 유수프를 다시 삼보三堡로 보냈다.”

6월 16일 일… 당비唐碑의 획득 “삼보로부터 말 두 필을 몰고 와서 석비를 가져왔다. 연대는 알 수 없었지만 당대(唐時)의 것 같았다. 석공을 써서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어 무게를 줄였다.”

6월 17일 월… “널판 5장을 구입하여 석비의 상자를 만들었다…”¹⁰⁾

하나의 유물에 대해 3일에 걸쳐 주요 사건으로 기록할 만큼 그는 이 비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6월 16일 일기의 제목과 수록된 탁본의 제목 및 설명을 보면, 그는 이 비의 작자와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 채 단지 ‘당나라 비(唐碑)’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나기행」 2권 말미의 ‘투루판 화물’ 목록에 따르면, 그 후 이 비는 ‘석비’와 ‘석비 소편小片’으로 분류되어 각각 ‘ㄷ상자’와 ‘ㄴ상자’에 포장되었는데, 기록된 화물의 무게는 98kg와 45kg로 합계 143kg에 달했다.¹¹⁾ 이번 조사에서 측정한 현재 고정된 비의 전체 중량은 약 170kg이며, 추가된 충전재의 무게를 감안하면 현재 비 자체의 무게는 운반 당시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강거사비는 발견 시부터 상당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으며, 비문은 현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는 같은 해 12월 19일에 투루판으로부터 우루무치의 러시아영사관으로 보내어져 그곳에 예탁되어 있었다.¹²⁾ 비는 탐험이 종료되자 제3차 탐험 유물이 담긴 총 95상자의 화물 속에 포함되어 1914년 1월 5일 우루무치를 떠나 같은 해 7월 10일에 고베에 도착한 직후 니라쿠소로 반입되었다.¹³⁾

1911년 신해혁명 발발 직후 일본으로 망명해 있던 뤼전위는 1914년 8월(음력 6월)에 니라쿠소를 방문하여 이 강거사비를 보았다. 그는 실견한 강거사비의 현상과 판독문을 『서수석각후록』에 아래와 같이 기록했다.¹⁴⁾

서수석각후록서목西陲石刻後錄序目

…여름 6월, 일본 오타니 고즈이 백작이 서쪽 변경에서 고적을 탐방하여 습득한 것을 효고군의 별저에 진열하여, 학자들의 유람 수단으로 삼았다. 나는 급하게 더위를 무릅쓰고 갔는데, 무주 강거사 사경 공덕기 잔석을 보았다. 탁본을 얻을 수 없어, 펠트와 먹을 가져가서 손수 탁본을 떴다…

위주 강거사 선경기 잔비偽周康居士繕經記殘碑

비는 10조각으로 갈라졌는데, 세어보면 대석 1점, 소석 9점이다. 대석은 높이 4척 2촌, 너비 3척 2분, 잔존 글자는 24행이 있으며, 행은 1자부터 30자까지 같지 않다. 앞의 9행은 경전 목록이고 뒤의 15행은 공덕기이다. 9점의 소석도 글자가 존재하며, 2행, 한 행 2자부터 5행, 한 행 12자까지

10) 吉川小一郎, 앞의 기사, p.617.

11) 위의 기사, p.631.

12) 위의 기사, pp.639-640.

13) 위의 기사, pp.689-705.

14) 羅振玉, 「西陲石刻後錄」, 『石刻史料新編 第2輯 地方類』, 新文豐出版公司編輯部 編(臺北: 新文豐出版, 1979), pp.11049-11051.

같지 않다. 정자체이다. 9점 소석 중에 5점은 경목으로, 대석 앞 9행에 속한다. 4점의 소석은 기문으로 대석의 후반부 15행에 속하나, 글의 뜻은 연결시킬 수 없다. 이에 대석은 앞에 소석은 뒤에 기록한다. 또한 소석은 경목을 앞에 기문을 뒤에 나열한다. 비는 투루판에서 출토되었다.

현재 중국국가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의 탁본은 대석 부분만을 뜯은 것이다. 그는 소석을 현재의 13점이 아닌 9점으로 기술했으며, 그중 제2소석(B편)을 2점으로 나뉜 지금 모습이 아닌 1점의 편으로 보았다. 위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1914년 8월에는 현재처럼 비편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참고로 뤼전위는 1914년 8월 1일부터 니라쿠소에서 개최된 최후의 중앙아시아 탐험 자료 전람회 기간에 방문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당시 요시카와의 제3차 탐험 수집 유물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회고했다.¹⁵⁾

비편들이 현재의 모습으로 정리된 것은 1914년 8월 이후부터 1916년 4월 사이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일본 궁내청 소장 강거사비 탁본은 1점의 대석과 13점의 소석이 지금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가 니라쿠소에 있었을 때 제작된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¹⁶⁾ 한편 현재 비편의 배치를 관찰하면 정리 당시의 방식과 순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나무틀 내의 소석들은 대석의 아래에 배치되어 있다. 개별 위치는 대석에서 사경목록과 공덕기가 구분되는 제9·10행 사이를 기준선으로 하여, 사경목록에 해당하는 비편이 오른쪽에, 공덕기에 해당하는 편은 왼쪽에 놓여있다. 이는 정리 시 우선적으로 명문을 판독하여 소석을 내용상 사경목록과 공덕기로 구분한 다음, 대석의 좌우로 구분된 위치에 맞춰 그 하단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소석들 간의 배치는 내용 순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비편의 형태에 따라 여기저기에 적당히 놓은 것으로 보인다.¹⁷⁾

한편 요시카와가 제3차 탐험을 수행하고 있던 1914년에는 오타니 고즈이가 문주門主로 있던 니시혼간사(西本願寺)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오타니는 그해 11월에 문주직을 사임하고 중국 뤼순으로 거점을 옮기며 탐험대 수집품 가운데 27,100점에 이르는 유물을 가져갔다.¹⁸⁾ 니라쿠소 건물과 그곳에 남아있던 유물들은 1916년 1월에 정상 구하라 후사노스케(久原房之助, 1869~1965)에게 매각되었으며, 4월에는 기증의 형식으로 조선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에게 인계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촉탁 바바 제이치로(馬場是一郎)를 니라쿠소로 보내 4월 22일에 구하라에게서 서역유물 373점의 인수인계를 마쳤다고 한다.¹⁹⁾ 이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앙아세아발굴품목록中央亞細亞發掘品目錄」에는 강거사비에 대해 “65번 경당비經堂碑, 1점, 발굴지 고창국, 파편을 철합하여 한 상자로 하다(破片

15) 芦屋市立美術館 編, 『(モダニズム再考) 二樂莊と大谷探検隊 1』(芦屋: 芦屋市立美術館, 1999), pp.161, 173.

16) 일본 궁내청 소장 강거사비 탁본은 일본 황실 소장 탁본으로 전한다. 오타니 고즈이의 부인 오타니 가즈코(大谷簫子)는 다이쇼 천황(大正天皇)의 황후인 데이메이 황후(貞明皇后)의 언니이다. 이 탁본은 오타니 고즈이가 천황에게 바친 것으로 추정된다.

17) 또한 소석 B-2편과 F편은 사경목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의 공덕기 영역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정리 시 이 비편 잔존 글자만으로 그 내용이 양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 임의로 배치한 결과로 추정된다. 게다가 1자의 일부 획이 잔존하는 3점의 소석은 판독할 수 없어서, 판독 가능한 소석을 배치하고 남은 공간에 적당히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18) 臺信祐爾, 『大谷光瑞と西域美術』(日本の美術 No.434)(東京: 至文堂, 2002),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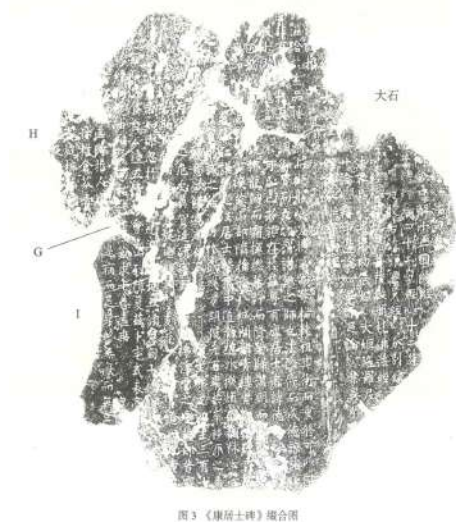
19) 「西藏遺品到達」, 『京城日報』(1916.5.5.夕刊), p.1; 片山章雄, 「大谷探検隊關係記録拾遺I」, 『季刊 東西交渉』15(東京: 井草出版, 1985), p.2 재수록.

綴合一函とす)”라고 기록되어 있다.²⁰⁾ 늦어도 이 시점에는 지금처럼 나무틀에 고정되어 있던 것이 분명하다.

강거사비를 포함한 373건의 발굴 유물은 1916년 5월 3일에 서울에 도착한 직후 경복궁 사정전思政殿에 격납되었다.²¹⁾ 같은 해 10월부터는 수정전修政殿에 진열되어 일제강점기 동안 일반에 공개되었다.²²⁾ 「다이쇼10년도각관진열품명부(大正十年度各館陳列品名簿)」에 수록된 진열도면과 목록에 따르면, 강거사비는 수정전 중앙실의 한가운데에 ‘지나 신강성 고창국 발견 단비斷碑’의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었다.²³⁾ 해방 후에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2020년 조사를 계기로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아시아실에서 개최된 〈투루판 지역의 한문자료(2021.6.14.~2022.6.30.)〉 전시에서 공개되었다.

Ⅲ. 비편의 접합안에 대한 재검토

강거사비 대석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9행의 전반부는 강거사가 사경한 경전명을 열거하고, 제10~24행의 후반부는 부처와 불법에 대한 찬탄으로 시작하여 강거사의 출신, 사경을 하게 된 연유, 발원에 따른 공덕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석 A·B·C·D·E·F편은 전반부 사경목록에, G·H·I편은 후반부 공덕기에 속한다.



도7. 룡신장의 강거사비 접합안

그렇다면 소석 9점(실제 10점)은 소석끼리 혹은 대석과 접합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일찍이 립전위는 “(비편 간의) 글 뜻은 연결시킬 수 없다(文義不能連貫)”고 했다.²⁴⁾ 룡신장은 1996년의 연구에서 대석과 소석의 비문은 내용상 관련성이 있음을 지적했으나, 당시는 비편들을 대조하기 위한 소석의 탁본을 볼 수 없던 상황이었다.²⁵⁾ 그는 2009년에 비편 전체가 찍힌 일본 궁내청 소장 강거사비 탁본 도판을 입수하게 되면서 비편의 결합 복원을 본격적으로 시도했다. 그는 비편에서 깨진 부분의 형태와 문맥을 분석하여 접합안을 제시했다(도7).

먼저, 공덕기에 속하는 소석 G·H·I편의 경우, 세 편은 대석 좌측의 파손 부위에 결합되는 것으로 보았다. H편은 위, I편은 아래에 위치하며, 두 편 사이에 G편이 들

20) 「朝鮮總督府博物館中央亞細亞發掘品目錄」, 『新西域記』下卷, 上原芳太郎 編(東京: 有光社, 1937), p.4.

21) 「西藏遺物著期」, 『京城日報』(1916.4.29.夕刊), p.1; 「西藏遺品到達」, 『京城日報』(1916.5.5.夕刊), p.1; 片山章雄, 앞의 논문, p.2 재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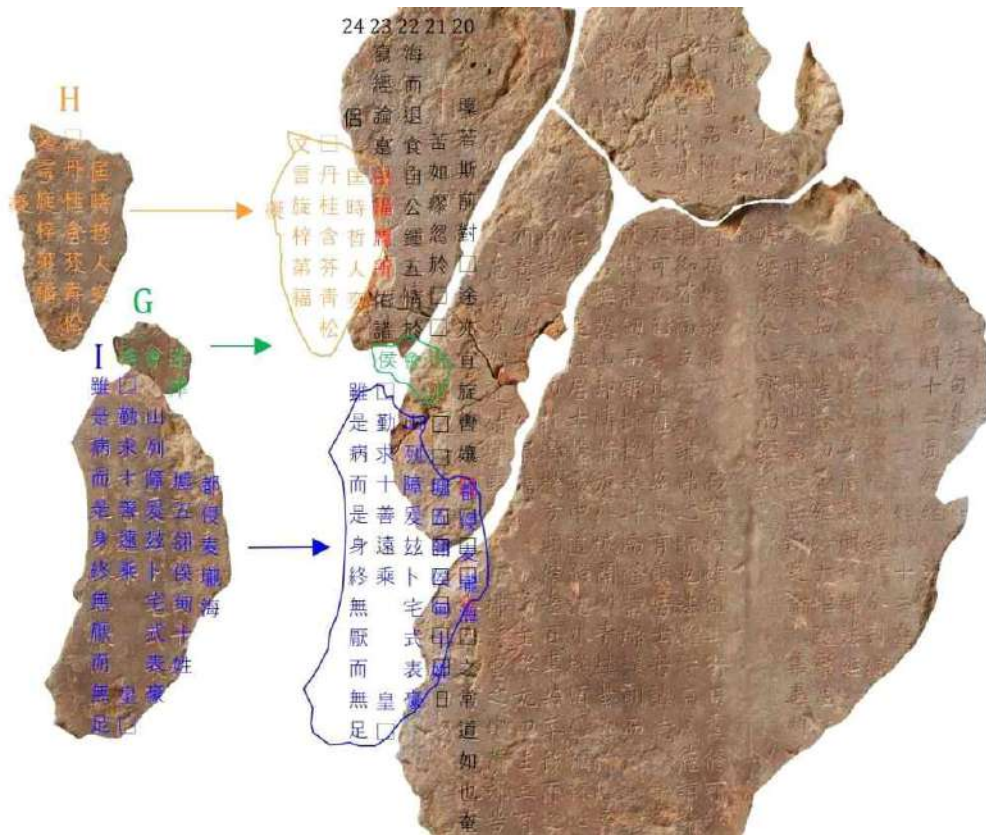
22) 「博物館に於ける西域品陳列」, 『朝鮮彙報』21号(1916.10.1.), p.197; 片山章雄, 앞의 논문, p.4 재수록.

23) 朝鮮總督府博物館, 「大正十年度各館陳列品名簿」(1921) 修政殿목록과 修政殿陳列圖 참조.

24) 羅振玉, 앞의 기사, p.11051.

25)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197.

어갈 것으로 추정했다.²⁶⁾



도8. 룡신장의 강거사비 접합안을 적용한 개념도(붉은색 글자는 소석의 비편 또는 글자와 겹치는 것을 나타냄)

그러나 탁본 이미지와 판독문으로 제시한 그의 접합안을 원비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도8). 소석 G·H·I편 모두 대석과는 접합되지 않는다. 첫째, 룡신장은 G·I편의 우단을 대석의 좌단과 접합시켰으나, 대석 좌단의 접합 추정 부위는 표면만이 박락되어 있는 반면 그곳에 결합되어야 하는 G·I편의 우단은 두꺼워서 접합이 불가능하다. 둘째, G·H·I편의 오른쪽 끝인 제1행의 글자는 대석의 글자 사이로 들어갈 수 없다. 룡신장의 안을 따르면, I편 제1행 “都侵麦壠海” 5자는 대석 제20행의 “田□□□” 4자에 들어맞아야 하는데, 글자 수도 차이가 있을뿐 아니라 같은 자리에 와야 할 ‘都’자와 ‘田’자가 겹쳐 충돌하게 된다. G편도 마찬가지로 제1행 ‘迷津’ 2자가 들어갈 대석의 자리에는 제21행의 ‘之圃’자가 존재한다.²⁷⁾ H편은 제1행의 우측에 글자가 있어야 할 행이 공백으로 되어 있어, 대석 좌단 제21행의 “由福履所”와 나란히 붙여놓을 수 없다. 셋째, 접합안에 따라 복원한 문장은 대석과 소석 비문 내용의 맥락이 달라 호응하지 않고 뜻도 어색하다.²⁸⁾ 예를 들어, 소석 I편 제1~3행의 내용은 ‘중앙아시아 어느 곳으로부터 투루판에 정착하기까지의 지리적인 서술’로 보이는데, 이와 접속될 것으로 본 대석 제20~22행은 ‘경전을 필사하여 복을 구하는 발원 내용’이어서 맞지 않는다.

26) 榮新江, 앞의 논문(2020), pp.201-202.

27) 현재 원비에서는 ‘之’자의 우측 획 일부가 잔존하고 ‘𠂔’자는 마멸된 상태이다. 그러나 1919년에 제작된 국박 소장 강거사비 탁본에는 2자가 보인다. 뢰전위 또한 ‘之𠂔’으로 판독했다.

28) 룡신장이 복원한 판독문은 榮新江, 앞의 논문(2020), pp.204-205 참조.

원비가 대석보다 훨씬 컸을 것으로 본다면 소석G·H·I편은 공덕기가 적힌 영역 즉, 제11~24행의 상·하측 또는 제24행의 좌측 중 어딘가에 떨어져서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합적인 판단일 것이다.

다음으로 룡신장은 경전목록에 해당하는 소석 A~F편의 경전명이 대석에 적힌 경전의 부류인 ‘현성집전’과 ‘당조신역경론’에 속하지 않는 경론으로 파악하여, 대석을 제외하고 소석 6점(실제 7점)끼리 접합을 시도했다. 그 결과 A편과 E편이 접합됨을 제시했다(도9).²⁹⁾ 그런데 이번 국박의 조사 과정에서 현재 두 조각으로 나뉜 B편의 오른쪽으로 F편이 접합되는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도10). 두 편은 형태가 서로 들어맞고, 잔획이 ‘相’자로 결합되며, 표면에는 특유의 반점이 관찰된다. 소석 6점에 적힌 경전들은 ‘현성집전’과 ‘당조신역경론’보다 앞선 부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비에서 6점의 위치는 대석 오른쪽의 어느 곳이 될 것이다.



도9. 소석 A·E편의 접합안



도10. 소석B·F편의 접합안

IV. 사경목록의 복원

앞장에서 강거사의 사경목록은 소석 A~F편의 ‘경론’, 대석 제1~4행의 ‘현성집전’, 대석 제5~9행의 ‘당조신역경론’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소석의 경론들은 원비에서 대석의 오른쪽 부분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룡신장은 현존 당대唐代 불교 공덕비는 적지 않으나, 비문 전반부에 사경목록을 나열하고 후반부에 공덕기를 갖춘 사례는 극히 희소함을 지적하고 비에 적힌 사경목록들은 특히 숙고할 가치가 있음을 피력했다.³⁰⁾ 그는 뤼순박물관 소장 및 『서역고고도보(이하 도보)』 수록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을 근거로, 비문의 사경목록이 강거사

29) 위의 논문, p.201.

30)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197.

의 일체경, 즉 경장經藏의 목록임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혜림慧琳이 편찬한 『일체경음의一切經音義』에는 당시의 불전 전체가 수록되어 있지 않은 점을 예로 들어 비의 사경목록은 강거사가 일가의 힘으로 구축한 것으로 대장경 전체는 아닐 것으로 보았다.³¹⁾

강거사비의 사경목록은 대장경의 일부에 불과하며, 무작위로 경전을 선택하여 나열한 결과인가? 이 사경목록이 세 범주로 분류되는 것은 경전들의 성격뿐 아니라 비문의 형식을 통해서도 알아차릴 수 있다. 먼저 대석 제1행의 ‘[集傳]’ 부분은 앞 글자가 탈락되었는데, 뒤에는 권수가 적혀 있지 않으며 한 칸을 비우고 경전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경전 범주의 제목’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부분은 당대 대장경목록의 분류 체계인 ‘경·율·론·전’ 중 ‘전’에 해당하는 ‘현성집전’으로 복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대석의 앞부분에는 경·율·론에 속하는 사경목록이 있었을 것이며, 소석 A~F편의 경전명이 그것이 될 것이다. 또한 ‘당조신역경론’이 시작되는 대석 제5행 위로는 최소 세 칸 이상의 공백이 있다. 따라서 강거사비의 사경목록은 당시 유통되던 대장경목록의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경전들의 구성과 순서도 어떠한 대장경목록에 기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룡신장은 소석의 ‘경론’과 대석의 ‘현성집전’에 속하는 경전의 상당수가 도선道宣이 찬술한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이하 내전록)』에 실려 있고,³²⁾ 대석의 ‘당조신역경론’에 해당하는 경전들은 지승智昇이 찬술한 『속고금역경도기續古今譯經圖紀』에 비교적 집중되어 수록되어 있음을 지적했다.³³⁾

『내전록』은 도선이 당 664년(麟德1)에 장안長安 서명사西明寺에서 찬집한 고심의 일체경목록이다. 그는 658년(顯慶3) 고종高宗의 칙명으로 서명사의 상좌上座에 임명되어 대장경과 이를 수장할 경장을 구축하는 데 참여했는데, 그 대장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역대 전해오는 각종 경록을 연구했다.³⁴⁾ 『내전록』 총 10권 가운데 권1~7은 기존 경록들을 계승한 목록인 반면, 권8 「역대중경견입장록歷代衆經見入藏錄(이하 입장록)」은 이 책에서 가장 특색 있는 부분으로, 도선이 서명사의 경장을 정리하면서 작성한 검출목록이자 서명사에 수장되어 있던 대장경의 전체 목록에 해당한다.³⁵⁾ 그는 권8의 서두에서 이 대장경의 분류 체계가 대승과 소승, 단역본과 중역본에 의거하고 경·율·론·전을 분명하게 구분한 것으로, 예로부터의 관례를 따랐음을 강조했다.³⁶⁾

발표자는 강거사의 사경 당시에 「입장록」이 가장 모범이 될 만한 최신 경록이었다는 점, 그 분류 체계가 강거사비의 사경목록과 같은 점, 강거사비에 적힌 경전명의 다수가 『내전록』에 등장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당조신역경론’을 제외한 강거사비 잔존 사경목록을 「입장록」과 하나씩 대조해 보았다. 그 결과 두 목록의 경전명이 완벽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온전했을 원비에는 현존하는 소석 A~F편과 대석 1~5행의 경전 총계 33부 158권을 넘어, 서명사 대장경 장서량인 총 801부 3,367권에 ‘당조신역경론’ 최소 17부 672권을 더한 경전들의 이름이

31) 榮新江, 앞의 논문(2020), p.208.

32) 위의 논문, pp.208-209.

33)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199.

34) 小野玄妙 編, 『佛書解說大辭典』7(東京: 大東出版社, 1933), pp.376-379.

35) 정승석 편, 『佛典解說事典』(민족사, 1994), pp.68-69; 姚名達, 『中國目錄學史』(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74), pp.279-285.

36) “今則隨乘大小據譯單重. 經律論傳條然取別. 猶依舊例未敢大分.” 『大唐內典錄』卷8, T2149, 55:302b25-26.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강거사비 전체 복원안은 (도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32109876543210987654321098765432109876543210987654321098765432109876543210987654321

[illegible]

도11.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잔비>의 사경목록 복원안

이로써 현존하지 않는 부분을 포함한 비 전체의 사경목록을 모두 복원할 수 있었다. 발표자는 대석 제1행의 범주 제목인 “(賢聖)集傳” 뒤에 한 자의 공백을 둔 점에 착안하여, 그 외 범주 제목도 마찬가지로 상정하고 제목의 앞뒤를 한 자씩 띄웠다. 또한 경전의 권수를 나타내는 모든 글자는 한 칸에 들어가도록 했다. 그다음 행을 82자로 맞추고 ‘대승경일역大乘經一譯’을 시작으로 「입장록」의 경전들을 차례로 배열해본 결과, 비편 글자들의 행과 열은 규칙적으로 들어맞았다.³⁷⁾

長安 西明寺의 대장경 『大唐內典錄』卷8, 「歷代衆經見入藏錄」					강거사비 잔존 사경목록 중 경론과 현성집전				
분류체계 및 순서 *잔존글자 굵게 표시			부수	권수	비편	경전명, 권수 *잔존글자 굵게 표시	번역시기	번역자	大正藏
經	大乘	一譯	204	685	C	菩薩夢經二卷	西晉	竺法護	소실본
						仁王般若波羅蜜經二卷	後秦	鳩摩羅什	T.245
						孔雀王陀羅尼咒經二卷	梁	僧伽婆羅	T.984
						商主天子經一卷 ³⁸⁾	隋	崛多 등	소실본
						人所從來經一卷	西晉	竺法護	소실본
					A+E	大乘三聚懺悔經一卷	隋	闍那崛多, 笈多 등	T.1493
						菩薩十住經一卷	西晉	竺法護	T.283
						甚深大迴向經一卷	?	?	T.825
						太子慕魄經一卷	後漢	安世高	T.167
							西晉	竺法護	T.168
	D	須摩提經一卷	唐	菩提流支	T.336				
		諸佛心陀羅尼經一卷	唐	玄奘	T.918				
		顯無邊佛土功德經一卷	唐	玄奘	T.289				
		佛臨涅槃記法住經一卷	唐	玄奘	T.390				
甚深希有經一卷		唐	玄奘	T.689					
小乘	重翻	202	497	-	-	-	-	-	
					-	-	-	-	
					-	-	-	-	
					-	-	-	-	
律	小乘		35	274	-	-	-	-	-
論	大乘		74	502	B+F	金剛般若論二卷	隋	達磨笈多	T.1510
						大乘五蘊論一卷	唐	玄奘	T.1612
						無相思塵論一卷 ⁴⁰⁾	陳	眞諦	T.1619
	小乘		33	676	阿毘曇八犍度論卅卷	前秦	僧伽提婆, 竺佛念	T.1543	
解脫道論十二卷 ⁴¹⁾	梁	僧伽婆羅	소실본						
賢聖集傳			49	184	대석 1~4행	佛本行集經六十卷	隋	闍那崛多	T.190
						百喻經四卷	齊	求那毘地	T.209
						法句集二卷	吳	支謙	소실본
						僧伽羅刹所集經三卷	前秦	僧伽跋澄	T.194
						阿含口解十二因緣經一卷	後漢	安玄, 嚴佛調 등	T.1508
						婆藪槃豆法師傳一卷	陳	眞諦	T.2049
						迦葉結經一卷	後漢	安世高	T.2027
						四十二章經一卷	後漢	迦葉摩騰, 法蘭	T.784
						十二遊經一卷	東晉	迦留陀伽	T.195
						총계			801

표1. 서명사 대장경의 분류체계(『입장록』)에 따른 강거사비 잔존 경론 및 현성집전 경전명의 복원안

37) 한편 이 복원안을 적용하면 경·율·론·전의 전체 복원 글자 수 6,970자의 0.17%에 해당하는 12자의 오차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원래 비에서 사경목록의 시작 지점이 행에서 어느 높이에 위치하는지 알 수 없다. 둘째, 분류 제목의 추정 글자 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다. 셋째, 일부 경전명 경록과 다르게 줄이거나 고쳐 쓰는 과정에서 脫字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38) 룡신장은 西晉 竺法護 역 『阿闍世王女無優施經』一卷(소실본)으로 복원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

39) 룡신장은 西晉 竺法護 역 『舍利弗悔過經』一卷(소실본)으로 복원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

강거사비 잔존 사경목록 중 경론과 현성집전 부분을 서명사 대장경의 분류 체계에 적용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표1). 선행 연구에서 복원한 경전명 가운데 일부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비편의 순서가 소석 C, A+E, D, B+F, 대석 1~4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분류 체계에서 ‘소승경일역小乘經一譯’과 ‘소승경중번小乘經重翻’, ‘소승율小乘律’을 제외한 모든 범주에는 잔존 비편의 경전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비에는 대장경 전체에 상당하는 사경목록이 기록되어 있었음이 유력하다.

도선은 「입장록」을 경장을 실제로 구축하는 자들에게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염두에 두고 작성했다. 서두에는 향후 독자에게 이 목록을 세세히 살펴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⁴²⁾ 그리고 목록에는 분류 체계에 따라 열거된 10여권을 1질씩 묶은 다음, 서명사의 가각架閣을 좌·중·우칸으로 구분하고 각 칸을 상하 9단으로 세분하여 차례로 격납하는 법을 별도로 표기했다.⁴³⁾ 그는 찾고 조사하는 것을 편리하고 하고 어지럽게 분산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방식을 고안했다고 밝히고 있다.⁴⁴⁾ 강거사가 이 목록을 그대로 따른 것은 이것이 당시 대장경 중 가장 발전된 단계의 표준 모델이었을 뿐 아니라 경장을 구축하기 위한 실제 지침서였기 때문으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대석 제5~9행의 가칭 ‘당조신역경론’에 속하는 경전들은 「입장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선행연구에서는 이들 경전명이 『속고금역경도기』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음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당조신역경론’에 속한 경전 17부 중 5부만이 『속고금역경도기』에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이 경록은 강거사비보다 후대인 730년(開元18)에 찬집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룡신장은 이 ‘당조신역경론’에 대해 소의 경록을 특정하지는 않은 채 당시까지 서주 사원의 경장에서 볼 수 없던 별개의 내력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⁴⁵⁾

강거사가 사경한 ‘당조신역경론’도 서명사대장경 목록과 같은 소의 경록이 존재했던 것일까? 도선은 「입장록」 서론 말미에 이 의문에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미 번역된 옛 경전(舊經)들을 요약하면 다음에 밝힌 것과 같다. 그 밖에 옥화궁玉華宮에서 나중에 번역된 것들이 있는데, 아직 그 새로운 번역본(新本)을 읽어 보질 못했다. 이어서 번역되고 덧붙여지는 것들은 알아서 다른 목록(餘錄)들에 의지하기 바란다.⁴⁶⁾ (밑줄은 필자표시)

도선은 서명사 대장경을 ‘옛 경전’이라 칭하는 한편, 그가 경장을 조성하던 중에도 많은 경전들이 새로 번역되고 있어 다 담을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이 ‘신역본’들을 보충하려거든 별

40) 룡신장은 B와 F편이 결합되지 않는 편으로 보았다. 따라서 B편 제1행에 잔존하는 ‘相思’자가 들어가는 경전을 劉宋 求那跋陀羅 역의 『十一相思念如來經』一卷으로 복원했다 또한 F편 제1행의 ‘相’자가 들어가는 경전을 陳 眞諦 역의 『無相思塵論』一卷으로 보았다. 그러나 두 편을 결합한 뒤 제1행 ‘相思’를 「입장록」의 해당 위치에 대입해보면 『無相思塵論』一卷으로 복원할 수 있다.

41) 룡신장은 唐 玄奘 역 『解深密經』五卷(T.676)으로 복원했다. 여기서 바로잡는다.

42) “輒此引喻。覽者詳焉。”『大唐內典錄』卷8, T2149, 55:302c19.

43) 서명사 가각 내 대장경이 입장된 서가의 위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승경일역은 중간 1~6단, 대승경중역은 중간 7~8단과 좌칸 1~2단, 소승경일역은 좌칸 3~6단, 소승경중역은 좌칸 6단, 소승율은 좌칸 7~9단, 대승론은 우칸 1~3단, 소승론은 우칸 4~6칸, 현성집전은 우칸 7~8칸에 격납되었다.

44) “依別入藏架閣相持。帙軸籤榜標顯名目。須便抽檢絕於紛亂。”『大唐內典錄』卷8, T2149, 55:302b27-28.

45) 榮新江, 앞의 논문(2020), p.209.

46) “今約已譯舊經。具如別顯。餘有玉華後翻。未覲新本。續出續附自依餘錄。”『大唐內典錄』卷8, T2149, 55:302c19-21.

도의 경록에 의거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거사비의 ‘당조신역경론’ 또한 별도의 경록에 의지해서 선별·보충한 것이었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강거사의 사경 불사가 이루어진 무주 시기에 유통된 최신 경록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695년(天冊萬歲1)에 측천무후의 칙명으로 명전明詮을 비롯한 70여명의 고승이 낙양洛陽의 불수기사佛授記寺에서 찬집한 최신 경록인 『대주간정중경목록大周刊定衆經目錄(이하 대주록)』이다. 『대주록』의 서문에 따르면 종래의 경전 목록집을 종합한 다음 그 이후에 번역된 새 경전들과 이전 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전을 바로잡았다고 한다. 이 『대주록』 상의 경전들을 검토한 결과, 강거사비 대석 제5~9행의 ‘당조신역경론’의 경전 모두가 『대주록』에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거사는 도선의 지침과 같이 신역 경전들을 당시 최신 경록인 『대주록』에서 가려내어 사경하고 대장경에 보충한 뒤에 그 목록을 비에 새겼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강거사비의 ‘당조신역경론’ 부분은 선행하는 경·율·론·전이 「입장록」에 부합하는 것과 달리 『대주록』에서 선별된 경전들의 목록이다. 따라서 현존하지 않는 비면에 새겨졌던 경전명을 완벽히 복원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아 있는 총 17부의 경전들은 650년부터 695년에 걸쳐 번역 또는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대주록』 가운데 「입장록」에는 없고 번역연대가 이 기간에 속하는 경전들을 강거사비 ‘당조신역경론’의 유력한 후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조건은 필자가 ‘당조신역경론’의 경전명을 복원할 때 그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전제이기도 하다.

남아 있는 경전들의 나열 순서를 『대주록』과 함께 분석하면 ‘당조신역경론’ 부분의 대체적 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표2). 복원한 경전명을 비문 순서대로 나열하면 ‘당조신역경론’의 경전들은 대승경, 대승론, 소승론, 현성집전, 무주시기 반포 최신 경전 순으로 분류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의 목록에는 현성집전에 속하는 경전이 없으나, 앞의 두 전제를 적용하면 적어도 661~663년(龍朔) 현장玄奘 역의 『대아라한난타밀다라법주기大阿羅漢難陀蜜多羅法住記』(소실본)와 693년(長壽2) 혜지慧智 역의 『찬관세음보살송讚觀世音菩薩頌』(T.1052)이 비에 적혀있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⁴⁷⁾ 그런데 비 사경목록의 마지막 부분인 제9행에 무주시기 국가에서 반포한 경전들을 별도로 묶어서 나열한 것은 『대주록』에도 없는 독창적인 분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대주록』의 분류 체계를 따랐다고 한다면 제9행의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과 『보우경』은 제6~7행의 대승경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다음으로 경전들은 해당 범주 내에서 번역자별로 분류되었다. 그중 현장이 옥화궁에서 번역한 경론이 6부나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말년에 현장은 번역에 전념하기 위해 잡무가 많은 수도 장안을 떠나 659년(顯慶4)부터 664년(麟德1)에 입적하기까지 당 황실의 이궁인 옥화궁에 머물며 경론을 번역했다.⁴⁸⁾ 이러한 경전 선택상의 특징은 앞서 인용했듯이, 도선이 “옥화궁에서 나중에 번역된 것(玉華後翻)”을 보충하지 못한 대표적인 신역본으로 특정한 것을 상기시킨다. 이상으로 강거사비의 경·율·론·전 전체와 당조신역경론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었다.

47) 물론 『讚觀世音菩薩頌』은 무주 시기에 한역되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범주인 ‘무주시기 반포 최신경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48) 현장의 말년 행적은 『大唐大慈恩寺三藏法師傳』卷10(T2053, 50:275b-280a)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49) 6-1, 6-2: 룡신장은 제6행의 이 부분을 ‘菩薩[]羅尼咒經二卷’으로 판독하고, 앞뒤 글자와 공백을 합쳐 하나의 경전으로 판단하였으나 경전명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앞뒤

大石 행·순서	경전명, 권수 *잔존글자 굵게 표시	번역연대	번역자	번역장소	大正藏	분류체계
5-1	大般若波羅蜜多經 _{六百卷}	唐 659~663	玄奘	玉華宮寺	T.220	대승경
5-2	分別緣起初勝法門經 _{二卷}	唐 650	玄奘	大慈恩寺	T.717	
6-1	大方等大集地藏菩薩十輪經 _{十卷} ⁴⁹⁾	唐 650~655	玄奘	大慈恩寺	소실본	
6-2	千轉陀羅尼咒經 _{一卷} 또는 六字陀羅尼咒經 _{一卷}	唐	玄奘	-	소실본	
6-3	離垢慧菩薩數聞禮佛法經 _{一卷} ⁵⁰⁾	唐 663	那提	慈恩寺	T.487	
7-1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 _{一卷} ⁵¹⁾	唐 683	地婆訶羅	西太原寺	T.829	
7-2	大方廣佛華嚴經入法界品 _{一卷}	唐 685	地婆訶羅	西太原寺	T.295	
7-3	造塔功德經 _{一卷}	唐 680	地婆訶羅	太原寺	T.699	
7-4	智炬陀羅尼經 _{一卷} ⁵²⁾	武周 691	提雲般若 등	大周東寺	T.1397	대승론
8-1	瑜伽師地論釋 _{一卷} ⁵³⁾	唐 650	玄奘	-	T.1580	
8-2	成唯識論 _{十卷} ⁵⁴⁾	唐 659	玄奘	玉華寺	T.1585	
8-3	唯識廿論 _{一卷}	唐 661	玄奘	玉華寺	T.1590	
8-4	辯中邊論 _{一卷}	唐 661	玄奘	玉華寺	T.1600	소승론
8-5	[阿毘達磨]品類足論 _{十八卷}	唐 660	玄奘	玉華寺	T.1542	
8-6	[阿毘達磨]集異門足論 _{廿卷}	唐 660~664	玄奘	玉華寺	T.1536	무주시기 반포 최신경전
9-1	大般涅槃經後分 _{二卷} ⁵⁵⁾	唐 664~665 *武周695간행	若那跋陀羅	-	T.377	
9-2	寶雨經 _{十卷}	武周 693	達摩流支	佛授記寺	T.660	
	17부 672권 잔존					

표2. 『대주록』에 따른 강거사비의 잔존 ‘당조신역경론’ 경전명의 복원안

- 구절 사이 공백에는 7자가 들어가고, 마지막의 권수는 ‘一卷’임을 확인했다. 이 두 가지 조건과 더불어, 「입장록」에는 없는 대신 『대주록』에는 등장하는 650년 이후 역출된 대승경전이라는 조건에 들어맞는 경전을 검색한 결과, 제6행의 ‘**菩薩**□□□□□□**羅尼呪經**一卷’ 부분은 『大方等大集地藏菩薩十輪經』_{十卷}과 『千轉陀羅尼咒經』_{一卷} 또는 『六字陀羅尼咒經』_{一卷}으로 추정·복원할 수 있었다.
- 50) 6-3: 『내전록』을 비롯한 모든 일체경목록에 기록된 이 경전의 정식 명칭은 『離垢慧菩薩所問禮佛法經』이다. 따라서 ‘數聞’은 오기로 판단된다.
- 51) 7-1: 룡신장은 唐 玄奘 역 『大菩薩藏經』_{廿卷}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이 경전은 「입장록」에 등장(T2149, 55:303a12)하기 때문에 그의 복원안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대신 「입장록」에 없고, 『대주록』에 있는 ‘藏經’으로 끝나는 경전은 唐 地婆訶羅 역의 『大乘離文字普光明藏經』_{一卷}이 있다. 이 경전으로 볼 경우, 같은 행 바로 뒤의 두 경전과 함께 세 경전은 거의 동시기에 西太原寺에서 지바하라가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목록의 분류체계와 순서에 자연스럽게 부합된다.
- 52) 7-4: 룡신장은 隋 闍那堀多 역의 『大法炬陀羅尼經』_{廿卷}(T.1340)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이 경전은 「입장록」에 등장(T2149, 55:303a15)할뿐 아니라, 번역 시기가 650년 이후가 아닌 수대이기 때문에 이 복원안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명문에는 ‘大炬陀羅尼’로 적혀 있어, ‘法’자가 없다. 大炬陀羅尼라는 경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자는 『대주록』에만 등장하는 650년 이후 번역된 대승경에서 유사한 경명을 검색하여, 이 경전명을 武周 691년에 大周東寺에서 于闐 출신 提雲般若 등이 역출한 『智炬陀羅尼經』_{一卷}으로 복원하고자 한다. 이 경전의 다른 이름이 ‘大炬陀羅尼經’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로서는 서사자가 ‘法’자를 실수로 빠뜨렸을 가능성보다는 ‘智’자를 ‘大’자로 오기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 53) 8-1: 룡신장은 唐 玄奘 역 『瑜伽師地論』_{一百卷}(T.1579)으로 복원했다. 그러나 이 논서는 「입장록」에 등장하기 때문에 그의 복원안은 성립할 수 없다. 그 대신 『瑜伽師地論釋』_{一卷}은 『대주록』에만 등장하며, 650년 현장이 번역한 논서에 해당한다.
- 54) 8-2: 8-1을 『瑜伽師地論釋』_{一卷}으로 볼 경우, 해당 부분의 명문은 ‘地□□□’와 ‘□□□論□卷’으로 나눌 수 있다. 『대주록』에서 현장이 650년 이후에 번역한 논서 중 4자로 된 것은 『佛地經論』_{七卷}(T.1530)과 『成唯識論』_{十卷}(T.1585)이 있다. 이 논서 바로 뒤에 오는 『唯識二十論』_{一卷}이 661년에 玉華寺에서 번역된 유가행파의 논서임을 고려하면, 앞의 ‘□□□論□卷’은 659년에 같은 옥화사에서 번역된 같은 유가행파 논서인 『成唯識論』_{十卷}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55) 9-1: 『대주록』에 처음으로 수록된 경전으로, 목록상에는 별칭인 『大般涅槃經荼毘分』_{二卷}으로 적혀 있다.

V. 무주 시기 투루판 지역 소그드인 불교도의 대장경과 강거사비 조성

1. 비의 원형

복원된 강거사비에는 만행 82자, 84행 이상의 명문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1행부터 제69행까지는 사경목록으로, 「입장록」과 동일한 경·율·론·전 801부 3,367권과 당조신역경론 17부 672권 이상의 경전명이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70행부터 제84행 이상은 발원자인 공덕기가 새겨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비신 전체 크기는 잔존 명문의 자간과 행간으로 짐작할 수 있다. 만행을 82자로 보았을 때 비신 높이는 약 266~288cm이며, 비 앞뒷면에 나뉘어 글씨가 새겨진 것으로 가정하면 너비는 약 126~140cm 이상으로 추정된다.⁵⁶⁾ 당 고종과 측천무후의 재위 기간(650~704년)에 속하는 현존 24기의 비 가운데 비신 높이가 3m가 넘는 것은 15기에 달하며, 그중 2기는 1행이 82자로 되어있다.⁵⁷⁾ 강거사비의 거대한 규모는 충분히 실존 가능한 것이다.

2. 강거사비의 제작 연대

룡신장은 비의 제작 시기를 『보우경』이 한역된 693년부터 측천문자가 폐지된 705년 사이로 비정했다.⁵⁸⁾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강거사비의 ‘당조신역경론’ 부분은 695년에 간행된 『대주록』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명문에 등장하는 『대반열반경후분』도 695년에 편찬·간행된 경전이다. 따라서 조성 연대의 상한은 695년으로 볼 수 있다.

하한은 비문에 나타난 개별 측천문자가 사용된 기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비문에 나타나 있는 측천문자 ‘𐰔’, ‘𐰕’, ‘𐰖’, ‘𐰗’ 중 ‘月’에 해당하는 ‘𐰖’자는 689년에 제정되어 사용되다가 697년 1월 1일부터 ‘𐰗’자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703년 1월 10일에 아스타나(阿斯塔那) 230호묘에 매장된 장예신張禮臣의 묘지에는 ‘𐰗’자가 적혀있다. 당의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는 측천문자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사용된 사례가 간혹 발견되나⁵⁹⁾ 강거사비에는 이러한 측천문자들의 변화가 비교적 시차 없이 적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강거사비는 서주의 불교계가 당의 중앙 체제 속에 종속되어 있던 시기에 제작되었고, 비의 ‘당조신

56) 그러나 명문의 행간과 자간이 일정하지 않으며 사경목록이 공덕기에 비해 행·자간이 좁은 경향이 있다. 글에서 제시한 크기는 원비의 전체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추정치에 불과함을 밝혀둔다.

57) 비신 높이 3m 이상의 비 15기를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행수는 1면을 기준으로 한다. 강거사비와 같이 만행이 82자로 된 비는 밑줄 표시하였다. 〈崔敦禮碑〉, 656년, 338×110cm, 36행 84자; 〈李靖碑〉, 658년, 427×128×42cm, 39행 82자; 〈周護碑〉, 658년, 341×111×37cm, 32행 84자; 〈張允碑〉, 658, 354×110×35cm, 32행 81자; 〈尉遲敬碑〉, 659년, 412×150×53cm, 41행 78자; 〈蘭陵長公主碑〉, 659년, 338×111×31.5cm, 31행 70자; 〈許洛仁碑〉, 662년, 338×120×36cm, 39행 77자; 〈杜君綽碑〉, 664년, 352×123×30cm, 39행 76자; 〈李孟常碑〉, 666년, 392×117×39cm, 35행 80자; 〈燕妃碑〉, 671년 353×117×35cm, 40행 100자; 〈馬周碑〉, 674년, 358×116×39cm, 37행 84자; 〈阿史那忠碑〉, 675년, 388×118×34cm, 32행 82자; 〈李勣碑〉, 677년, 570×180×54cm, 32행 90자; 〈豆盧仁業碑〉, 678년 321×104×34cm, 33행 57자; 〈述聖記碑〉, 684년 630×186×186cm, 46행 120자 高峽 主編, 『西安碑林全集: 卷192 附錄陝西碑石薈華』(廣州: 廣東經濟出版社, 1999), pp.425-429.

58)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p.200-201.

59) 우에다 키헤이(植田喜兵衛), 「측천문자(則天文字)의 발명과 전파」, 『문자와 고대 한국 1: 기록과 지배』, 한국목간학회 편(주류성, 2019), pp.263-264.

역경론'은 무주 시기 칙명으로 편찬한 『대주록』을 따르고 있으며, 경전 가운데 측천무후 정권의 정치적 선전물인 『보우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거사비 제작 시기의 하한은 '𡇗'자가 '康'자로 변경된 뒤 서주에 적용되기까지의 시간을 고려한 697년경이 될 것이다.



도12. 강거사비(좌)와 『도보』 수록 강가일체경 표제 단편(우)의 '康'자 서체 비교

3. 강가일체경의 잔영

앞에서 서술했듯이 통신장은 1996년 연구에서 『도보』 수록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을 강거사의 사경활동의 흔적으로 추측했다. 그는 2015년 연구에서 뤼순박물관 소장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을 추가로 발견하여 학계에 보고하고 강거사가 사경한 대장경이 실존했음을 공표했다.⁶⁰⁾

여기에 더해 발표자는 강거사비의 각서와 '강가일체경'의 목서의 '康'자의 서체를 비교하여, 비와 강가일체경 사이의 관련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강거사비와 강가일체경의 '康'자는 닮아있으며 서체 상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도12). 강거사비에 적힌 대장경이 강가일체경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일체경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강거사비에 적혀 있었을 경전들은 일부 경전이 아닌 대장경 그 자체였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사경목록 복원안의 타당성을 한층 높인다.

통신장은 강거사비에 나열된 경전명과 권수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강거사가 1종의 불전을 1부씩 사경한 것으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사경 형태로 보아 강거사가 대장경을 사경한 주된 목적이 장서와 경독일 것으로 해석했다.⁶¹⁾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게도 강거사와 동시기 투루판에 살았던 장예신의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생전에 “경전을 읽고 불상을 조성(轉經造像)”하는 등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말년에는 “일체경을 한 바퀴 경독했는데,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새벽녘이 되어서도 피곤함을 잊었다(敬讀一切經一遍. 手無釋卷, 曉夜忘疲.)”고 한다.⁶²⁾ 장예신은 국씨고창국麴氏高昌國의 최고 중앙호족인 장씨 가문의 후예로 702년에 사망했다. 강거사는 비의功德기에 따르면 원래는 강국(康國, 사마르칸트)의 귀족이자 지도자였으나, 당의 서역 정벌 때 무리를 이끌고 투루판에 이주해 정착한 인물이었다. 장예신이 독경한 일체경이 강거사의 강가일체경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분명한 것은 한인 출신 고창국의 토착 호족과 소그드 출신의 신진 세력이 7세기 말 투루판 서주에서 불교 신자로서 공존했으며 그들의 종교 활동의 중심에는 '일체경'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60) 그는 두 단편 목서의 서체를 감별하여 동일인이 쓴 것으로 보았다. 榮新江, 앞의 논문(2020), p.199.

61) 위의 논문, pp.210-211.

62) 侯燦, 吳美琳, 『吐魯番出土磚誌集注』下卷(成都: 巴蜀書社, 2003), pp.610-614.

4. 강거사비가 있던 장소

석비가 고창고성에서 발견되었다는 요시카와의 기록을 신뢰하면 강거사비는 도성 내 평지사원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룡신장은 강거사가 이처럼 대규모의 사경 불사를 일으켜 그 업적을 서주 성내에 거대한 비석을 세워 공표한 것은 관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강거사의 사경 목적은 서주의 한 사찰의 대장경 중 결실된 경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며, 그 사찰은 관립 사찰(官寺)인 ‘대운사大雲寺’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주장했다.⁶³⁾

촉천무후는 690년(載初1) 7월에 『대운경大雲經』을 천하에 반포함과 동시에, 전국의 주에 대운사를 설치하게 하고, 천 명을 승려로 임명했다.⁶⁴⁾ 룡신장은 대운사가 칙령으로 건립된 관사이기 때문에, 서주에도 돈황, 우전于闐, 쇄엽碎葉 등지와 마찬가지로 대운사가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⁶⁵⁾ 그러나 아직까지 투루판 출토 문서 가운데 ‘대운사’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존재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발표자는 대운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강씨 가문의 사찰인 ‘강사康寺’에 주목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강거사의 발원이 유력한 ‘강가일체경’은 그 이름 자체가 강씨 가문을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관립 사찰보다는 유력 호족에 의해 건립된 씨사氏寺에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투루판 출토 문서들에는 국씨고창국 시기부터 당 서주 시기에 걸쳐 고창의 대성大姓을 사찰의 이름으로 한 다양한 씨사가 등장한다.⁶⁶⁾ 씨사들의 다수는 성내의 주택지 가운데 자리했으며 그 주변에는 독실한 불교신자들이 살고 있었다.⁶⁷⁾ 그런데 국씨고창국 시기에는 52개소의 씨사가 확인되는 것에 반해, 서주 시기에 접어들면 단지 7개소의 씨사가 확인될 뿐이다.⁶⁸⁾ 이 7개소 씨사 모두는 두 시기에 걸쳐 존속했던 사찰이다. 이 가운데 바로 ‘강사’가 포함되어 있다.⁶⁹⁾

63)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208.

64) “載初元年 … 秋七月 … 有沙門十人僞撰大雲經, 表上之, 盛言神皇受命之事. 制頒於天下, 令諸州各置大雲寺, 總度僧千人.” 『舊唐書』卷6 本紀第6 則天后

65)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208 각주 2.

66) 투루판 출토 문서 중에는 총 133개의 사원명이 등장한다. 그 이름을 분석하면 이 지역의 사찰은 크게 3종류로 구분된다. 고창의 대성들이 세운 씨사, 관부와 관련된 관사, 공양을 위해 건립한 사원이 그것이다. 특히 국씨고창국 시기에 씨사의 수는 52개소에 달했다. 적어도 당에 점령당하기 전까지 투루판 불교는 씨족적인 불교의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小田義久, 「西州佛寺考」, 『龍谷史壇』93·94(1989), p.4.

67) 위의 논문, p.8.

「唐焦延隆等居宅間架簿」(72TAM152:32,33)에 의하면, 초연유이라는 인물의 거택은 북쪽으로 張寺와 인접하고 있었다. 또한 모씨의 집은 남쪽으로 云王寺에 접하고 있었으며, 魏海隆의 집은 동쪽으로 公主寺, 남쪽으로 □□寺에 접하고 있었다. 魏隆太의 집은 서쪽으로 韓寺에 접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사, 운왕사, 공주사, 한사 등은 모두 주택지 가운데 세워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國家文物國古文獻研究室,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武漢大學歷史系 編, 『吐魯番出土文書』2(北京: 文物出版社, 1994), pp.148-150. 또한 「魏海隆家書」(72TAM152:31/1)에 따르면, 公主寺의 서쪽에 거주했던 魏海隆은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를 경배하는(海誦經, 祖佛須敬.)” 독실한 불교신자였다. 위의 책, p.151.

68) 小田義久, 앞의 논문, pp.9-11.

69) 국씨고창국 시기의 ‘강사’가 등장하는 투루판 출토 문서는 다음과 같다. 「高昌計人配馬文書」(72TAM153:31~33) 『吐魯番出土文書』1, p.281; 「高昌張武順等葡萄園畝數及租酒帳」(60TAM320:01/1~3) 『吐魯番出土文書』1, pp. 324-327; 「高昌義和二年(615)七月馬帳」(72TAM151:58, 60) 『吐魯番出土文書』2, pp.91-92; 「高昌某年郡上馬帳」(72TAM151:59, 61) 『吐魯番出土文書』2, p. 93; 「高昌買馱」

당은 고창국을 평정하고 왕족과 상층부의 호족들을 중원으로 압송했는데, 이때 후원자였던 토착 세력이 소멸하면서 다수의 씨사들은 결국 폐사의 길로 접어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강사’가 사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당의 국가 불교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성공적으로 편승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당이 점령한 직후 서주의 불교계에는 삼강三綱(上座·維那·寺主) 제도가 도입되어 실행되었다.⁷⁰⁾ 무주 시기에 들어 서주의 불교 교단은 국가의 관료 지배 체제 속으로 더욱 종속되었다. 『통전通典』 예부禮部에 따르면, “694년(延載1) 5월에 천하의 승려와 비구니를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속한 사부祠部로 예속시킬 것”을 명하고 있다.⁷¹⁾ 서주에서도 이 조서에 따라 사찰들은 관료 체계 속으로 편입되었고, 사원에서 승려들의 생활까지도 문서로 작성되어 삼강을 통해 관청에 보고되었다.⁷²⁾ 예를 들어, 투루판 문서 「무주 증성원년(695) 5월 서주 고창현 승복사 전 경력武周證聖元年五月西周高昌縣崇福寺轉經歷」은 서주 승복사 승려들의 조석 독경을 일일이 기록하여 관부에 제출한 것으로, 서주 불교계의 당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⁷³⁾

강거사가 무리들을 이끌고 당에 귀부해 왔던 7세기 중엽의 투루판은 고창국의 상위 호족들이 와해되고, 새로운 지배 계층이 당의 관품제로 재편되는 과도기에 있었다. 그는 서주의 지배층의 공백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서북 지방으로 이주해온 신진 세력들은 특히 측천무후 정권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동시기 돈황에 살았던 소월지小月氏의 후예인 지경支慶과 로프노르(Lop Nor, 鄯善)에 살았던 강국 출신의 강불탐연제지사발康拂耽延弟地舍撥은 691년(天授2)에 특이한 자연 현상을 측천무후의 황제 등극에 대한 상서로운 징표로 삼아 무주 정권에 대해 열렬히 칭송하는 글을 일제히 올렸다.⁷⁴⁾ 강거사 또한 대장경을 사경하고 이를 기념하는 비를 세움으로써, 무주 정권이 주도하는 대규모 불사에 뜻을 함께했을 것이다. ‘강사’가 당대에도 존속할 수 있었던 것과 강거사가 일으킨 대규모 불사의 밀바탕에는 ‘무주 정권이 주도하는 불교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 내포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VI. 맺음말

이상으로 국박 소장 〈무주강거사사경공덕기잔비〉의 선행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실물 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병행하여 강거사비의 원형을 복원하고 조성 배경에 대해 고찰했다.

入練·遠行馬·郡上馬等人名籍」(72TAM151:57) 『吐魯番出土文書』2, p.97.

당 서주 시기의 ‘강사’가 등장하는 투루판 출토 문서는 다음과 같다. 「唐貞觀十五年(641)西州高昌縣趙相□夏田契」(64TAM15:16) 『吐魯番出土文書』2, p.29.

70) 小田義久, 앞의 논문, p.7.

71) “延載元年五月, 制天下僧尼隸祠部, 不須屬司賓.” 『通典』23 禮部

72) 小田義久, 앞의 논문, pp.11-12.

73) ‘武周證聖元年(695)五月西周高昌縣崇福寺轉經歷’(73TAM193:1, 27-30, 37) 國家文物國古文獻研究室, 新疆維吾爾自治區博物館, 武漢大學歷史系 編, 『吐魯番出土文書』4(北京: 文物出版社, 1996), pp.231-235.

74) P.2005 『沙州都督府圖經』卷3, ‘廿祥瑞’條; 榮新江, 앞의 논문(2014), pp.206-207에서 재인용.

강거사의 공덕기 부분인 대석 10~24행과, 소석 G·H·I편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종래 복원안이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사경목록에 해당하는 소석 A~F편 가운데 종래 연구에서 밝힌 A와 F편의 접합에 더해, B와 F편이 접합됨을 새롭게 확인했다.

강거사가 사경한 경전들은 선행 연구에서 복원한 44부 858권을 크게 상회하는 총 818부 4,039권 이상에 달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 경전명 모두는 온전했을 강거사비의 1행부터 69행에 걸쳐 새겨져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경전들은 ‘경·율·논·전’과 ‘당조신역경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 체제와 전체 경전명은 『내전록』의 서명사대장경 목록인 「입장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당조신역경론’의 경전들은 도선의 지침처럼 무주 시기에 측천무후의 칙명으로 반포한 『대주록』에서 선별하여 보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원비에서 소석 A~F편과 대석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었고, 소실된 대부분의 경전명을 완벽히 복원할 수 있었다. 아울러 선행 연구에서 복원한 경전명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았다.

비신 앞뒷면 전체에는 82자로 구성된 84행 이상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원비는 비신 높이가 3미터에 육박하는 거비로 추정했다. 비의 조성 시기는 693년부터 705년 사이로 본 기존의 편년에서 더욱 좁힌 695년부터 697년 사이로 비정했다. 소의 경록인 『대주록』과 사경목록의 『대반열반경후분』은 695년에 간행되었고 비문에 새겨진 측천문자 ‘㉔’자는 696년까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선행 연구에서 강거사가 조성한 대장경의 실존 유물로 제시한 <‘강가일체경’ 표제 잔편>에 더해, ‘강가일체경’의 묵서와 강거사비의 각자에서 ‘康’자는 서체가 매우 닮아 있어 비와 강가일체경 사이의 관련성을 보다 높이는 보충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또한 강가일체경의 조성 직후인 7세기 말에 투르판의 재지호족 출신의 장예신이 말년에 일체경을 전독했다는 묘지명의 내용은 강가일체경의 유존에 관한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강거사비가 있었던 장소로 강국 출신 소그드인 대성의 씨사인 ‘강사’를 지목했다. 특히 대장경의 제목이 성씨를 머리글자로 한 ‘강가일체경’이라는 점은 강거사비가 ‘강사’와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사’는 투르판의 다른 씨사들과는 달리 당대에 들어서도 존속했다. 그 이유는 당이 국가적 불교로 전환했던 흐름에 성공적으로 편승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비의 공덕기에 따르면, 강국 출신의 강거사는 7세기 중엽 당의 서역 정벌 때 무리들을 이끌고 귀부한 소그드인의 지도자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투르판의 지배층이 재편되던 시기에 터전을 잡고 상당한 재력과 권력을 쌓아올렸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진 세력이었던 그는 동시기 이민족 출신의 권세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무주 정권의 탄생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대규모 불사를 일으켰다. 최종적으로 거대한 기념비를 도성 안의 사찰에 세워 ‘강가일체경’의 사경을 불후의 기록으로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강거사비는 무주 시기 투르판 불교사의 특수한 측면들을 살펴볼 수 있을뿐 아니라 향후 ‘강가일체경’에 속하는 경전 사본을 찾아내기 위한 귀중한 석각 자료임에 틀림없다.

근년 출토된 일본 목간에 대하여

小宮秀陵(獨協大學)



근년 출토된 일본 목간에 대하여

小宮 秀陵(獨協大學)*

I. 들어가며

일본 목간학회에서는 연1회 회원이 모아서 총회를 열고 연구집회를 개최한다. 필자는 한국목간학회 선생님들과 2023년 12월 2일, 3일에 걸쳐 제45회 목간학회 연구집회에 참석하였다. 첫날은 총회에 참석하고 이어서 개최된 연구발표 3편을 청강하였다. 거기에서는 평안경 출토 목간에 관한 연구발표 3편, 둘째 날은 2022년 일본 전국에서 출토된 목간의 소개 및 후쿠시마나 교토에서 출토된 목간에 관한 연구발표 3편을 청강하였다. 또한 연구집회에서는 일본의 목간 실물을 직접 관찰하는 기회가 있었으므로, 올해 출토된 주요 목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 아울러 그 날에 『목간연구』(제45호, 2023년)을 받아 2022년 일본목간의 동향을 알 수 있었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본목간의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근년 일본에서 흥미를 끈 목간들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근년 목간의 출토 현황과 특색을 개관한 후 발해 사신과의 관련성을 엿보게 해주는 呪符 목간, 그리고 중세 일본에서 민속적으로 유행한 목간이라는 두 종류의 목간 사례를 소개하면서 목간의 역할과 접근 방법의 중요성을 생각하고자 한다.

II. 근년 출토된 일본 목간 개관

『목간연구』(제45호, 2023년)에 따르면 2022년에 출토된 목간은 183점이며 이를 정리하면 고대 : 14점, 중세 : 27점, 근세 : 48점, 근대 : 10점, 고대~중세 : 1점, 고대~중세, 근세 : 4점, 근세~근대 : 79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목간이 출토된 유적은 고대 10개, 중세 11개, 고대~중세 2개, 근세 9개, 근대 3개, 근세~근대 5개로 분류된다.²⁾

목간 점수를 보면 중세와 근세 목간이 중심을 이룬다. 한편 유적의 점수를 보면 근세, 근대보다 고대, 중세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근세, 근대 시기 목간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음을 의미한다.

중세나 근세에 출토 사례가 집중됨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아래 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목간이 출토된 사례(중복 있음)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그림 1). 주황색이나 회색이 많으므로 중세·근세 유적에서 발견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³⁾ 특히 근세 유적에서 목간이 많이 확인되었다. 2022년에 출토된 근세~근대 목간은 약 48점으로서 시대적으로 가장 많다. 2016년 출토 목간 중에는 滋賀縣 神照寺坊遺跡에서 나온 것이 12,025점이며, 거의 대부분 나무 단편에 경문을 쓴 柿(고케라)經이었다.⁴⁾ 다만 같은 해에 1,000점 이상의 근세 목간

* 獨協大學 言語文化學科 준교수

1) 이번 목간학회에서는 한국목간학회 회장인 김병준 교수님과 편집이사인 이재환 교수님과 동행하여 馬場基 奈良文化財研究所平城地區史料研究室長님의 안내를 받아 평성궁과 주작문 밖에 있는 발굴현장 등을 實見하였다.

2) 鶴見泰壽, 2023, 「2022年出土の木簡」, 『木簡研究』 45, 1 쪽.

3) 磐下徹, 2021, 「2020年出土の木簡」, 『木簡研究』 43, 1-2쪽을 바탕으로 표로 정리하였다.

4) 古山明日香, 2017, 「滋賀縣 神照寺坊遺跡」, 『木簡研究』 39, 71쪽

이 확인되었으므로 근세 목간의 점수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2022년 출토 목간을 유적의 성격에 따라 8가지로 분류하여 시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⁵⁾

- ① 토성 : 고대4, 중세 1, 근세 1
- ② 관아 : 고대3
- ③ 집락 : 고대6, 중세7, 근세5, 근대3
- ④ 생산유적 : 고대2, 중세2
- ⑤ 산포지·기타 : 중세2
- ⑥ 성관 : 고대1, 중세4, 근세7, 근대5
- ⑦ 사찰, 신사 : 중세1, 근세1
- ⑧ 토시 : 근세1, 근대1



그림 1. 시대별 출토 유적 사례(2016-2019)

유적 성격의 흐름을 보면 고대에는 토성이나 관아 같은 행정기구와 집락이 중심을 이룬다. 중세 이후에는 영역지배를 실시한 인물이나 세력의 공간인 성관이 중심을 이루며, 종교적인 특성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한편 집락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사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앞으로는 이처럼 출토 유적의 시대별 성격차나 이를 통한 목간의 시간적 성격 차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III 일본 목간 소개와 분석

1) ‘急急如律令’이 기록된 목간

근년 출토된 목간에 ‘急急如律令’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急急如律令’이라는 문구는 현실적 율령의 영향을 받은 것과 도교적 영향을 받아 주술적인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분류된다.⁶⁾ 중국에서는 오래된 것으로 漢代 목간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⁷⁾ 일본 고대 목간 등에서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긴 내용으로 파악해 왔다.⁸⁾ 다음에 소개하는 목간 역시 주술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우선 『목간연구』(제45호, 2023년)는 滋賀縣 穴太(아노오) 유적에서 이른바 ‘급급여율령’으로 보인 목간이 출토된 것을 전한다(그림 2).⁹⁾

5) 鶴見泰壽, 2023, 앞의 논문(2쪽) 분류를 바탕으로 재정리하였다.

6) 坂出祥伸, 2003, 「冥界の道敎的神格: 「急急如律令」をめぐって」, 『東洋史研究』 62-1. 이 논문에서는 <급급여율령>의 도교적인 성격의 등장 획기를 남조 시기로 파악하고 天師道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7) 漢代 목간인 流沙墜簡에는 “毋忽如律令”이라는 문구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사는 坂出祥伸, 2003, 앞의 논문, 75-79쪽.

8) 山里純一, 1999, 「「急急如律令」考」, 『日本東洋文化論集』 5. 여기에서는 일본에서 <급급여율령>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목간을 藤原京에서 출토된 목간으로 설명하고 주술적인 성격과 7세기 말엽에는 일본에 전래된 것으로 보았다(5쪽).

9) 岡田有矢, 2023, 「滋賀・穴太遺跡」, 『木簡研究』 45, 65-66쪽.

〔急〕〔律〕
忽々如津令

이 목간은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의 것으로 추정되어 있다. ‘忽々’이라는 표기는 ‘急急’과 같은 뜻으로 추정된다. ‘津令’이라는 문구 또한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木簡庫DB에서는 이러한 문구를 확인할 수 없는데, 琵琶湖 주변에 있는 유적의 환경과 流路에서 이 유물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면 ‘ㄱ’이 목간의 주술적인 측면과 동시에 물과의 관련성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그림 3).¹⁰⁾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으로 유구에서 金銅製花文腰帶具나 灰釉陶器 綠釉陶器가 출토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4).¹¹⁾ 이들 가운데 金銅製花文腰帶具는 유사한 사례를 畝田ナベタ(우네타나베타)遺跡(石川縣), 鳥羽(도바)遺跡(群馬縣)에서 찾을 수 있고, 이번 腰帶具는 제주도 龍潭洞遺蹟에서 출토된 금동제 腰帶具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¹²⁾

이처럼 금속품과 목간이 같이 나왔음을 보면 제사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금동제 腰帶具는 발해나 거란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시기나 정식 교류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발해 사신과의 관련성이 높을 것이다.

아울러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유물이 나온 지역의 특색이다. 이 유물이 나온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바로 唐崎(韓崎·辛崎 : 가라자키)지역이 나온다. 이 지역은 고대에 不淨을 없애는[祓]靈적인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다.¹³⁾ 실제로 『日本靈異記』 가운데 〈염마대왕의 사자인 귀신이 잡은 사람한테 베풀을 받아 풀어놓았던 이야기〉에서는 聖武(쇼무) 때 平城京에 있는 檜磐嶋(나라노이와시마)가 大安寺의 ‘修多羅分の 동전’을 빌리고 福井 敦賀에 가서 교역하고 唐崎까지 돌아와서 귀신과 만나게 된 일, 그리고 소를 귀신에게 주고 경전을 읽은 영향을 받아 귀신이 檜磐嶋를 풀어주었던 일을 전한다.¹⁴⁾ 거기에서 辛崎가 福井 敦賀(쓰루가)와의 교역 루트상 거점으로 기능하였음과, 唐崎가 귀신을 만나는 현실 세계와 冥界의 경계로 묘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敦賀에는 松原客館도 설치되어 발해 사신을 응접하는 기능을 다하였으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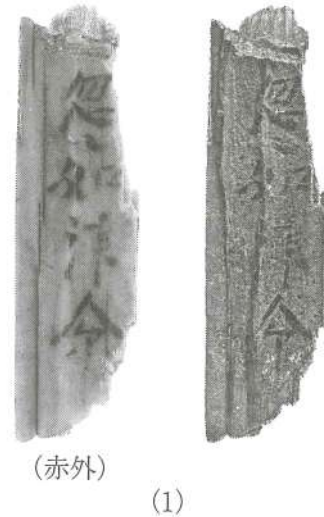


그림 2. 급급여율령이 기록된 목간
(岡田有矢, 2023, 앞의 논문, 66쪽에서 轉載)

10) 大橋信弥, 2015, 「近江における文字文化の受容と渡来人」,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研究報告』 194, 43쪽.

11) 이 金銅製花文腰帶具는 많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본고에서 사진은 다음 기사를 게재하였다. “青銅製の帶金具が出土、花の文様付きは全国3例目”, 『朝日新聞』 2022.10.31.(2024.1.17. 열람).

12) 畝田ナベタ(우네타나베타)遺跡과 洞遺蹟에 대해서는 熊谷葉月·小嶋芳孝, 2002, 「畝田ナベタ遺跡出土の帶金具について」, 『石川縣埋蔵文化財情報』 7, 33-37쪽 참조.

13) 高倉瑞穂, 2010, 「唐崎再考: 「唐崎祓え」의再認識」, 『佛敎大学大学院紀要. 文学研究科篇』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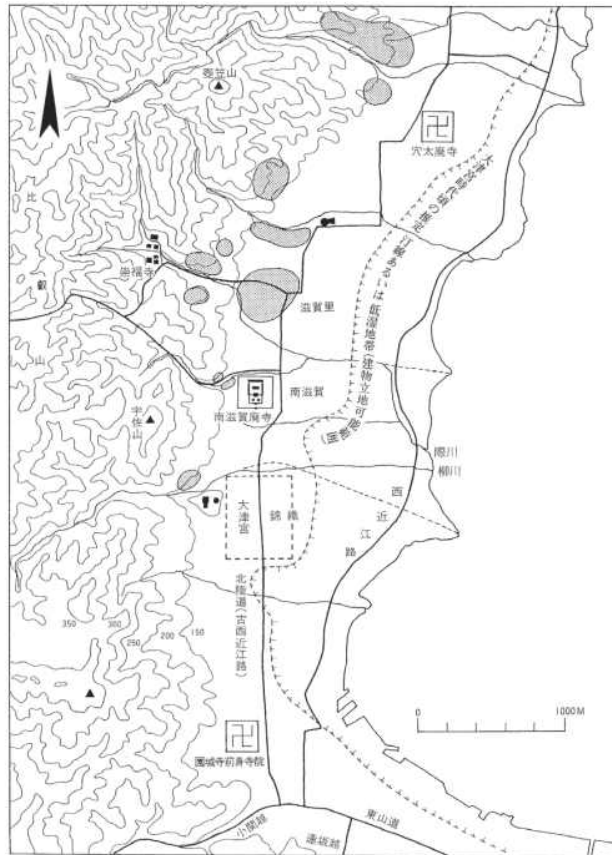
14) 『日本靈異記』, 「閻羅王使鬼得所召人之賂以免緣 第二十四」.

이 사료는 「殺牛祭神」의 禁止令의 사료로 주목된 바 있다(伊藤信博, 2005, 「桓武期の政策に関する一分析 (1)」, 『言語文化論集』 26-2).

발해 물품은 唐崎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또한 古代의 간선도로 중 畿内に 들어가기 전 첫째 北陸道 驛舎가 穴太驛이며, 발해 사신들이 福井를 통해 穴太驛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穴太 유적이 위치한 지역은 국제교통의 要衝地이며, 또한 발해인도 경험할 만한 일본열도의 신앙 공간이라고 하겠다.

더불어 유의해야 하는 것은 이 유적 주변에서 시기를 달리하는 백제계 도래인의 거주 실태나 활동을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백제에서 전래된 壁柱建物이나 온돌유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과, 穴太廢寺 등 역시 도래계 씨족에 의해 건립된 사원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¹⁵⁾ 또한 唐崎 지역에서는 奈良時代に 疫病神을 없애는 역할을 하거나 祈雨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이는 土馬도 확인되었다. 土馬에 대한 신앙은 한반도에서 이어진 것으로서, 미니어처 부뚜막 토기가 穴太 지역을 포함한 특정 지역에서 확인되는 데 비해 일본 각지에서 씨족들의 신앙으로 정착하였다.¹⁶⁾ 즉, 도래인들에 의해 이 지역에 특색 있는 신앙 공간이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疫病을 없애는 [祓] 신앙 공간으로 형성되었다는 이 지역의 환경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急急如律令’이 나타난 목간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즉, 이번에 출토된 목간은 9세기-10세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전부터 있었던 도래인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한 신앙의 영향 등을 재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급급여율령이 기록된 주술 목간은 시대를 넘어 주술적인 성격을 띠면서 고대에서 근세까지 확인된다.¹⁷⁾ 중세



第1圖 大津北郊遺跡位置圖

그림 3. 고대 穴太廢寺 인근 地形圖(大橋信弥, 2015, 앞의 논문, 43쪽에서 轉載)

15) 권오영, 2008, 「壁柱建物에 나타난 백제계 이주민의 일본 畿内지역 정착」, 『韓國古代史研究』 49; 李炳鎬, 2013, 「일본의 도래계 사원과 백제 유민의 동향 I-大阪、大津、東國、吉備의 고고학 성과를 중심으로-」, 『韓國史學報』 53.

16) 水野正好, 1985, 「古代祭祀の源流-東アジア」, 『日本宗教事典』, 弘文堂, 39-40쪽.

17) 13세기로 추정되는 近江國의 우물 터에서 ‘水’字를 많이 기록한 목간이 출토된 바 있다. 한국에는 다음 논문을 통해 소개되었다.

万国花, 2010, 「扶餘 陵山里 출토 299호 목간」, 『목간과 문자』 6, 23-24쪽.

또한 근년 급급여율령이 기록된 목간이 大阪府柏原市法善寺에 있는 大県郡条里 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중세 생산 유적으로 평가되는 이 유적에서는 備前焼, 청자 기와와 함께 ‘急急如律令’이 적힌 목간이 출토되었다. 목간은 길이 9.1cm, 폭이 최대 3.0cm, 두께가 최대 0.4cm이며 아래 쪽 끝은 부러져 있고 상부 우측은 결손된 상태이다. 이 유적 동남쪽에는 6세기 후반의 鍛冶工房 터가 확인된 대

이후 급급여울령이 기록된 목간이 곳곳에서 확인되므로, 이러한 목간 출토 환경과의 관련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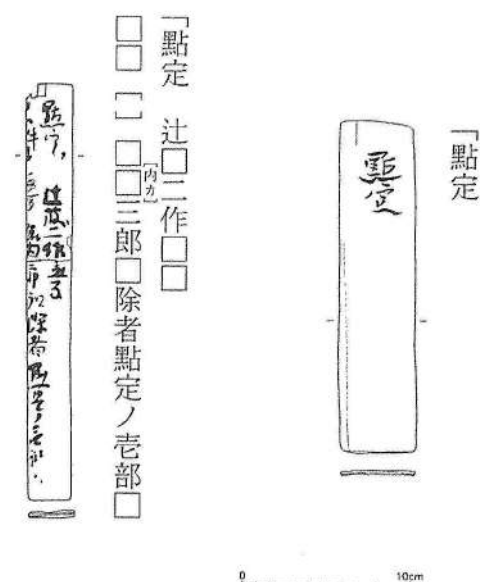
2) 點定札木簡

근년 點定札(덴조후다)로 불리는 중세 목간이 출토되었다. 點定札라는 용어는 사료상 확인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유물로 발견된 것이 처음이어서 일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¹⁸⁾ 點定이란 고대·중세에 땅, 가옥, 기타 물건에 배타적인 점유권을 확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⁹⁾ 점정의 용례는 9세기 단계에는 확인할 수 있는데, 권력이 어떤 영역을 押收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점정과 같은 뜻으로 點札이라는 용어를 들 수 있다. 點札은 ‘點定立札’의 줄임말로써 중세 영토 지배와 관련하여 연공 등 공적인 조세 등을 미납한 경우나 영주에게 숨기고 전발을 耕作한 것에 대하여 영주가 미납자, 경작을 숨긴 사람, 그리고 그 땅에서 도망간 사람들의 가옥이나 땅, 수확물을 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주는 대상 물건 주변에 목찰을 세우거나 神木을 세워서 영주의 배타적인 점유권을 명시하였는데,²⁰⁾ 이번에 출토된 點定札 또한 이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²¹⁾

구체적으로 南森本遺跡에서 點定札가 13세기 전반~중엽의 土師器(하지키)·靑磁·白磁와 함께 1점 출토되었다. 목간은 상단부와 하



그림 4. 金銅製花文腰帶具(朝日新聞, 2022.10.31. 기사 사진에서 轉載)



第32図 左：南森本遺跡出土木簡
右：木越光徳寺遺跡出土木簡
(金沢市2023第45図31)〔S=1/5〕

그림 5. 點定札(金沢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編, 2023, 『石川県金沢市 南森本遺跡(金沢市文化財紀要344)』, 金沢市, 59쪽 轉載)

県遺跡이 있는데, 거기에서 鐵滓나 韓式系土器가 출토되었다. 또한 大県遺跡 남쪽은 智識寺(太平寺 廃寺)가 있는 지역이다.

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編, 2023, 『柏原市大県郡条里遺跡 : 寝屋川水系改良事業(一級河川恩智川法善寺多目的遊水地)に伴う埋蔵文化財発掘調査報告書(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調査報告書<第325集>)』, 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18) 點定札木簡에 관해서는 일본 보도기관을 통해 보도되었고, 金沢市埋蔵文化財センター에서 이를 소개하는 동영상 등을 보여주고 있다.

19) 仲村研, 1988, 「點定」, 『國史大事典』, 吉川弘文館.

20) 위의 글.

21) 向井裕知, 2023, 「點定札木簡について」, 『石川県金沢市 南森本遺跡(金沢市文化財紀要344)』, 金沢市, 58-60쪽.

단부가 모두 잘려져 있고 앞면만 표면을 다듬었으므로, 點定札로 사용할 때 가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글씨는 ‘點定’부터 시작하는데, 묵흔이 있는 부분이 풍화되지 않고 주변보다 떠 있음을 통해 밖에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木越光德寺遺跡에서도 點定札이 1점 출토되었다. 이 목간 또한 13세기 土師器나 珠洲焼 도자기가 공반되었으며, 13세기대로 추정되는 해자(堀)와의 접속 지점에서 출토되었다는 상황을 고려하면 13세기의 것으로 보인다. 이 목간은 ‘點定’이라는 단어만 확인되는데, 상단·하단 모두 잘라졌으며 글씨 부분이 떠 있음을 보면 역시 밖에 있었다고 추측된다. 南森本遺跡에서 출토된 목간의 문자 순서를 보면 큰 글씨로 點定이라는 용어가 제시된 후, 이어서 ①땅의 명칭 ②그 다음 행에 경작자 이름이나 名田의 명칭으로 보이는 표현이 나온다.²²⁾

여기서 유의할 것은 點定札의 기능적인 측면인데, 이 목간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건물 밖에 놓여 있었다는 점이 목간에 남은 흔적으로부터 추정되고, 목간을 박아두었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목찰에는 그 현실적 기능의 측면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관련해 點定에 관한 다음 기록이 주의를 끈다.

수확물을 점정할 때는 神木을 세우고 땅을 점정할 때는 목찰을 세우는 것이 옛날부터 規式이다.²³⁾

이러한 사례는 중세에 점정찰을 사용한 방법으로 수확물에 대해서는 신목을 세우는 데에 비해 땅에 대해서는 목찰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워 두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나무가 가지는 神靈性的 함의이다. 실제 15세기 중엽부터 16세기 전반의 상황을 전하는 『大乘院寺社雜事記』에서는 신목을 세운 기록이 확인되는데, 이들 신목에 사용된 나무는 비쭈기나무(榊)라고 한다. 당시 압수할 때 무력적인 수단은 마지막 단계에서 채용된 것이며, 종교적인 권위가 있는 신목을 제시하는 행위는 민중에 대한 示威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²⁴⁾ 즉 나무를 세우는 것을 통해 신령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목을 세우는 근거는 고대에 이용된 罽[串]의 계보 속에도 지적되었다. 즉, 고대에는 榊과 같은 罽을 세움으로써 신이 병의한 나무를 통해 땅의 안전을 보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인 권위를 갖는 罽[串]을 대신하여 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점찰이 일반적으로 유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되었다.²⁵⁾

點定札의 계보를 신목이나 그 전에 존재한 罽[串]에 찾을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나무를 세우는 행위를 통해 공간적인 차이를 만드는 것과 시각적인 효과가 신령성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22) 向井裕知, 2023, 앞의 보고서, 59쪽.

23) 『嘉元記』 曆應2(1339)년 3월26일 조문, “毛ノ点定之時ハ, シメヲ立, 地ヲ点定之時ハ札ヲ立之条, 往古之規式也”.

24) 나무의 신령성에 대해서는 다음 논고에서 지적된다.

杉山晴康, 1974, 「クシザシ」考, 『早稲田法学』 49-2, 28쪽.

植田信廣, 1986, 「名字を籠める」という刑罰について : 『大乘院寺社雜事記』を手掛かりにして, 『法政研究』 53-1, 57쪽.

25) 杉山晴康, 1974, 앞의 논문, 33쪽.

IV. 나가며

본고에서는 근년 일본에서 발견된 두 종류 목간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담겨진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급급여율령’이 기록된 목간이나 點定札 목간은 일견하면 그 기능적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당시의 정신 세계의 차이를 제시하기 때문이다. 다만 나무가 가지고 있는 神靈性은 시대를 넘어 발견지역의 환경이나 행위의 계속성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急急如律令’이 기록된 목간은 도래인들이 활동하였고 일본에 보편적으로 보급되지 않았던 미니어쳐 부뚜막 토기 신앙이 남겨진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해당 지역은 土馬 신앙이 도래인들의 신앙에서 일본 곳곳에 널리 퍼져가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고대 일본에서도 不淨을 없애거나 현실과 명계를 구분한 종교적인 공간이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발해 사신과 관련된 수변 제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므로, 고대 후기에 신령성을 갖춘 환경이 형성된 배경으로서 한반도 신앙의 전래와 정착의 영향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點定札木簡은 그 당시 땅이나 가옥 등을 압수하였음을 표시한 것이었다. 목찰은 중세에 보이는 것이지만 원래 신령성을 갖춘 신목을 세운 행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변화해 갔던 것으로 보이며, 목간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나무를 세우는 행위가 갖고 있는 영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새로 출토된 고대와 중세 목간을 통해 그 주술적인 성격이나 신령성을 살펴보았다. 원래 목간 연구는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그 성격을 결정짓는 작업이며, 시간의 차이보다 동시대적인 성격의 동질성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시간적으로 목간의 계보를 볼 때 어떤 기능이 계승되고 어떤 기능이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나, 거기에 담겨진 목간의 특성에 대해서도 깊은 탐구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대량의 근세 목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세 목간에 대한 접근 등은 현재 출토된 목간 수가 적은 한국목간의 특성을 고찰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시간적인 접근을 통한 방법론적인 고민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²⁶⁾

26) 근세 목간을 통한 연구는 재현성이 높은 검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주목된다. 岩淵令治·大八木謙司, 2020, 「近世木簡研究の視座-東京都新宿区四ッ谷一丁目遺跡を事例に-」, 『木簡研究』 42.